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공군



와 함께한
아름다운 동행



- 06 Leadership+ 나눔과 베품의 리더십
- 08 Global AF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서는 세계 최초 실전 배치! F-22 랩터
- 11 프로메테우스의 눈 세계 주요국들의 미래전 전망과 우리의 대비방향
- 12 World-Wide Vision 명예와 군기의 상징, 미 공군 의장대



- 18 기획특집 스타와 함께한 아름다운 동행
- 28 참모총장 스케치
- 30 AIR FORCE MONTHLY
- 34 생각하는 그림 벌레를 위해 세운 기념비
- 36 알기 쉬운 공군 파이팅 펄콘, JDAM으로 더욱 강해졌다!

COVER STORY



SBS 영웅호걸 촬영팀이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을 찾았다. 최근 인기 연예인들의 자발적인 입대 문화가 두드러지면서 군과 스타의 관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군과 스타의 동행은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 걸까? 이들의 아름다운 동행은 또 다른 시작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CULTURE 36.5

40



- 40 Hollywood English 랭고
- 42 Behind the Canvas 시대정신을 담아냈던 화가, 자크 루이 다비드
- 44 인생은 아름다워 나가사키 항구에 찾아온 봄날의 사랑, 오페라 나비부인
- 46 Preview 3월의 문화행사

OPINION

48



- 04 Letters to the Editor 월간 「공군」 1월호를 읽고서
- 48 KF-16과 날아올라! 동아일보 유 기자의 KF-16 탑승 체험기
- 52 Health Diary 청력에 대한 관심, 귀를 보호합시다!
- 54 창공 글터 공군, 내 마음의 풍경 몇 장
- 56 책마을 세븐 센스

MONTHLY MAGAZINE

VOL. 393. 2011. 03

발행일자 2011년 3월 2일(통권 제393호) 발행인 공군참모총장 발행처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02-506-6935, 042-552-6935 편집인 공군본부 정훈공보실장 대령 최영훈 기획·편집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중위 기용호, 소위 류재영 디자인·인쇄 국군인쇄창(960-7443~7445, 042-550-7443~7445)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는 공군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QR코드 안내

월간「공군」은 모바일 시대에 발맞춰 독자들과 더욱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QR코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QR코드를 통해서도 독자의견 및 퀴즈 응모를 할 수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QR코드는 표지와 57페이지에 있습니다.

1월호를 읽고서

L E T T E R S T O T H E E D I T O R

월간 「공군」은 **[팝콘]**이다. 월간 「공군」을 읽는 날이면 영화를 보 01
면서 먹는 팝콘의 고소한 냄새가 사무실에 퍼지는 것 같다. 천천히 읽으면서 느껴지는 그 짭조름한 맛, 한 달에 한 번씩 내게 찾아오는 활력소이다. 1월호에서는 〈Into the Community〉의 스노우보드 동호회에 관한 글을 재밌게 봤다. 바쁜 시간을 쪼개서 스노우보드를 타는 SRSC 회원들을 보면서 건강하고 힘찬 공군인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 충북 청원군, 유한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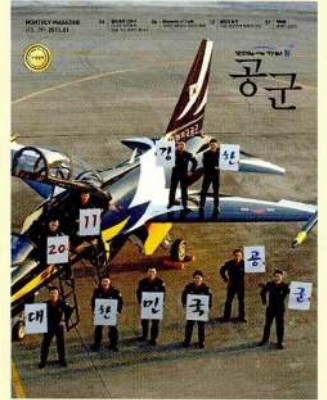
02 월간 「공군」은 **[남편]**이다. 제 남자친구가 공군이 된 후 자연스럽게 월간 「공군」을 읽게 되었고 지금은 애독자가 되었네요. 이번엔 용기내서 엽서를 쓰게 되었는데 설레기도 하고 재미있네요. 항상 「공군」을 읽으면서 우리나라의 공군은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시스템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남자친구와 대화할 때 공감대를 좀 더 형성할 수 있게 되었네요. - 충남 논산시, 정새봄

월간 「공군」은 **[파워]**다. 이번호가 처음인 「공군」이라는 책, 은 03
행에 갔다가 보게 되었네요. 저는 아직 공군에 대해 잘 모르는데 「공군」을 읽고 조금 알게 되었어요. 공군인은 정말 기분에 대해서 충실한 것 같아요. 「공군」을 읽고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관심도 없고 아는 것도 정말 하나도 없었는데 「공군」이 많은 정보를 줬네요. 이제 공군에 대해 더 알고 싶으면 이 책을 더 많이 읽어야겠어요. - 전남 여주시, 하연수

04 월간 「공군」은 **[추억]**이다. 매월 호를 보면서 의장병으로서 내가 참가했던 행사, 준비했던 시간들이 생각나기 때문이다. 1월호에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험차게 비상하는 검은 독수리들'이라는 〈기획특집〉이 눈에 띄었습니다. 군 입대 전 ADEX 행사장에서 블랙이글스를 보고 무한한 동경심을 가지게 됐고 공군에 입대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습니다. - 경기 수원시, 최승훈

월간 「공군」은 **[미인]**이다. 아름답고 멋진 이성에게 계속해서 05
눈길이 가듯,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은' 공군인들의 매거진이기 때문입니다. 1월호에서는 〈Leadership+〉의 '셀프리더십을 길러라'라는 글이 흥미로웠습니다. 군 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충남 서산시, 임재환

06 월간 「공군」은 **[소통]**이다. 단순히 읽히는 잡지가 아니라, 독자와의 소통을 소중히 여기는 「공군」은 없어서는 안 될 나의 소중한 친구다. 1월호에서는 〈삼각지 논객〉의 '지금 공군에서 필요한 것은'라는 글이 기억에 남았다. 초기 전쟁이 발발하면 공군력에서 승패가 좌우된다고 하는데, 이제는 정말 공군력을 최우선으로 보강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현장인〉이라는 코너를 신설하여 공군에서 남모르게 열심히 일하는 인물이나 조직을 소개하여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경남 김해시, 백순일



Global & Insight

나눔과 베품의 리더십

* Leadership+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서는
세계 최초 실전 배치! F-22 랩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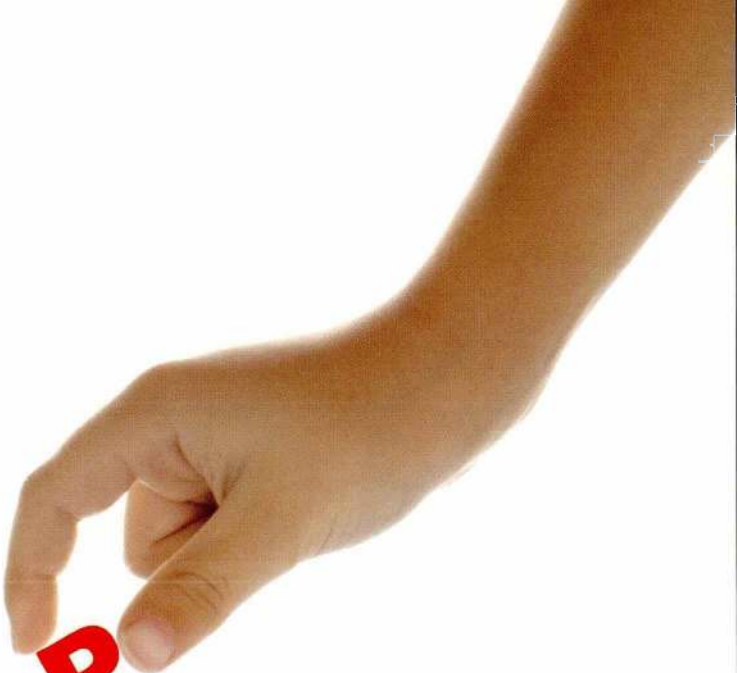
* Global AF

세계 주요국들의 미래전
전망과 우리의 대비방향

* 프로메테우스의 눈

군기의 상징, 미 공군 의장대

* World-Wide Vision



LEADERSHIP^P

나눔과 베품의 리더십

최소의 비용, 최고의 성과. 조직을 이끌어 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염원해 마지 않는 효율적인 경영방법이다. '효율'이란 단기적인 성과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과를 위한 최선책이 아닌데도, 사람들은 눈에 띄는 것만을 원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어떤 사장이 외국 회사의 용역을 맡아 새로운 인사제도와 보상체계를 만들었다. 그럴 듯하게 만들었으나, 2년을 운영하는 동안 전혀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 하소연을 해오셨다. 얘기를 자세히 들어 보니 놀랍게도 그는 '어떻게 하면 직원들의 급여와 각종 복지비용을 최소화할 것인가'에 온 신경을 쓰고 있었다.

나는 '베품의 원칙'을 설명했다.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산 사람이 역사상 훌륭한 리더였음을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친구들 중에서, 또는 친인척 중에서 가장 많이 베푸는 사람이 누구냐고, 혹시 그 사람이 주위 사람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를 따르는 사람이 많지 않더냐고.

그는 그렇다고 인정하면서도 자기는 '지난 20여 년 동안의 직장생활에서 베품을 극소화한 효율적인 경영으로 성공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항변했다. 나는 그에게 교육과 개인 코칭을 통하여 세상이 변하고 있음을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그가 충분히 감지하고 효율 위주의 패러다임을 바꾸도록 도와주었다.

대강 2000년을 기점으로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리더십이 수평적, 원칙 중심적, 섬김의 리더십으로 바뀌고 있다.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강압적인 남편을 더 이상 참지 못한 황혼이혼이 급증하는 것은 남편들이 패러다임을 바꾸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사장은 아니나 다를까, 부인과의 사이도 좋지 않았다. 모든 것을 부인 탓과 엄마의 '잘못된' 행동을 옹호하는 자녀들 탓으로 돌려 왔는데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세상의 흐름에 뒤늦은, 즉 경직되고 낡은,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었음을 반성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여전히 '일정한 급료를 받는 직원들이 먼저 회사를 위하여 뭔가 보탬이 돼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반박하였다. 그의 말에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어쨌든 강자인 회사가 그동안 베품의 경영 철학이 없었다면 약자인 임직원들이 먼저 베풀어 주기 힘들다.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 메아리의 원칙처럼 리더가 먼저 "사랑해요." "성공을 도와주겠소." 라고 하면, 머지않아 임직원들이 나도 "사랑해요." 회사의 "성공을 도와주겠소."



풍요의 심리는 '세상은 풍요로우며,
모든 사람이 나누어 가질 만큼 모든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패러다임
이다. 또 이 패러다임은 명예, 칭찬,
이익, 그리고 의사결정 등을 다같이
나누어 갖게 만든다.

라고 메아리 쳐 되돌아온다.

풍요의 심리는, 세상은 풍요로우며, 모든 사람이 나누어 가질 만큼 모든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패러다임이다. 또 이 패러다임은 명예, 칭찬, 이익, 그리고 의사결정 등을 다같이 나누어 갖게 만든다. 삭막한 비즈니스 세상에서 '풍요의 심리'라니 꿈같은 얘기 아닌가? 믿을 수 없다면 머크(Merck)라는 유명한 제약회사의 스토리를 들어 보자.

1991년, 머크의 최고경영자 로이 배젤로스는 "우리의 성공은 무엇보다도 질병에 대한 투쟁의 승리요, 인류에 대한 봉사였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라고 100년 넘게 이어져 온 그들의 기업 정신을 밝혔다. 이러한 정신을 배경으로 그들은 맥티잔(Mectizan)이라는 리버 블라인드니스(river blindness : 제3세계의 수백만 명이 감염되어 있는 병으로, 기생충이 신체 조직에 침투하여 실명에 이르

는 병) 치료제를 개발했다. 머크는 이 프로젝트가 많은 수익을 가져다주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정부나 제3의 단체에서 이 약을 구입하여 나누어 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프로젝트를 진행시켰다. 결국 머크는 회사 자체 비용으로 약의 배포 활동에 참가했다. 그리고 그 후, 그는 일본 기업가들로부터 2차 대전 후 일본이 결핵에 신음할 당시 스트렙토마이신을 제공한 곳이 머크였고, 일본에서 가장 큰 제약 회사가 된 것을 보았다.

'이윤 추구를 넘어서' 인류에 베풀고 봉사한 아름다운 이야기이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더 크고 지속적인 이윤을 얻은 성공 스토리이기도 하다.

나눔과 베풀, 그리고 섬김의 자세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이자 기본원칙이 아닐까. **AF**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서는 세계 최초 실전 배치! F-22 랩터



주요 '스텔스' 전투기 소개

연재순서

1. F-35 Lightning
2. F-22 Raptor
3. F-15 SE
4. Eurofighter Typhoon

• 본 란은 공군의 차기 FX사업과 무관함을 밝힙니다.

F-22 랩터는 187대로 생산이 종료되었다. 187대 가운데 시험기체 등을 제외하면 양산기는 179대에 불과하다.



F-22는 냉전시대 최강의 제공전투기였던 F-15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F-22 랩터는 스텔스 성능을 갖춘 세계 최초의 전투기로 평가된다.

F-22 랩터는 현재 미 공군의 주력 제공전투기이다. 랩터가 배치됨으로써 미 공군은 장소와 시간, 전투의 성격이나 상대의 능력에 상관없이 언제나 제공권을 장악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F-22 랩터가 놀라운 점은 바로 이 기체가 세계 최초의 '스텔스' 제공 전투기라는 점이다.



하늘의 지배자 '스텔스'

전투기는 공중에서 모든 적을 제압할 수 있어야 한다. 싸움에서 적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주 단순히 말하자면 먼저 보고, 먼저 쏘고 먼저 떨어뜨릴 수 있는 능력(first-look, first-shot, first-kill)을 갖춰야 한다. 그래서 각국의 국방연구자들은 자신은 보이지 않으면서 남을 먼저 볼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항공에서는 '스텔스 기술'이 대세이다.

스텔스 기술은 1962년 한 러시아 과학자의 논문에서 시작되었다. 약 10년 후에 이 논문을 접한 미국의 엔지니어가 '보이지 않는 비행기'를 만들겠다고 덤벼들었다. 그리고 또 10년이 지나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최초의 스텔스 전투기(실제는 공격기)였던 F-117 나이트호크이다.

스텔스 기술을 활용하면 적의 레이더에 걸리지 않게 접근하여 어떤 곳이라도 타격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스텔스 전투기나 폭격기를 가진 나라가 마음만 먹으면 다른 나라의 지휘통신체계를 직접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텔스 군용기는 발달을 거듭하여 드디어 F-22와 같은 진정한 전투기가 탄생하기에 이르렀다. 스텔스 군용기는 제1세대인 SR-71 전락정찰기, 제2세대인 F-117 전투기를 거쳐 F-22부터는 제3세대 스텔스로 분류된다.

F-22 랩터의 등장

5세대 전투기의 시대를 연 것은 록히드마틴/보잉의 F-22이다. F-22는 전세계

의 영공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미 공군이 1970년대부터 야심차게 개발한 제공 전투기이다. 냉전시절 세계 최고의 제공전투기라는 명성이 자자했던 F-15 이글 제공전투기를 대체할 ATF(Advanced Tactical Fighter; 차기 전술전투기)을 놓고 미 공군은 무려 1970년부터 초기 형상연구를 시작했다. 그러던 것이 1981년 MiG-29와 Su-27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새로운 제공전투기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본격적인 ATF 사업이 시작되었다.

ATF 사업에는 최초에는 보잉, 제너럴다이내믹스, 록히드, 맥도넬더글러스, 노스롭 등 당대 굴지의 항공제작사들이 참여했다. 한편 1986년 공군에서 수많은 항공사의 제안기종들 가운데 2개 후보기종을 선정하여 성능비교비행을하기로 결정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미국의 방산 항공업계가 파면되어 버린 것이다. 록히드에는 보잉과 제너럴다이내믹스가, 노스롭에는 맥도넬더글러스가 참가하여 콘소시엄을 구성했다. 후보기종으로는 록히드팀이 제안한 YF-22, 노스롭팀이 제안한 YF-23이 결정되었다.

프로토 타입 항공기를 사이의 경쟁은 1990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시험비행은 공군이 아니라 업체 주도 하에 실시되었다. 즉, 시험비행의 계획 자체는 업체가 수립하며, 공군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 프로토 타입이 수행할 비행 가이드라인만을 설정했다. 1991년 4월, 약 6개월 간의 짧은 성능비교비행 결과 YF-22가 우수한 것으로 판명되면서 결국 ATF 사업은 록히드의 YF-22가 되었다.

이렇게 어렵게 등장한 F-22 랩터가 최고의 전투기라고 불리는 이유는 "3S"에 있다. 3S란 스텔스(Stealth), 속도(Speed) 그리고 센서통합(Sensor Fusion)을 말한다. 이런 3대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랩터는 진정한 차세대 전투기의 표준을 세우고 있다.

가공할 랩터의 능력

F-22 랩터의 능력은 랩터가 배치된 지 6개월 만에 드러났다. 2006년 6월 '노던 엡지' 훈련에서 랩터 12대가 참가했다. 여기서 랩터들은 수차례의 모의 공중전에서 가상적기를 108대나 격추시켰다. 특히 랩터가 속한 블루포스는 대항군 레드



1. F-22의 엔진인 F119는 추력편향방식에 슈퍼크루즈 기능까지 갖춘 스텔스 엔진이다.
2. F-22는 개전초기에 적 전장을 누비며 제공권을 장악하고 B-2 폭격기와 함께 주요 목표를 타격하는 미 공군 최고의 전략무기체계이다.
3. F-22에는 JDAM 유도폭탄을 장착할 수 있는데, 2,000파운드 JDAM을 장착할 수 있는 F-35와는 달리 F-22는 1,000파운드 폭탄 2개만을 장착할 수 있다.
4. F-22는 블록40까지 예정되어 있는데, 블록20부터 JDAM과 SDB를 통한 폭격이 가능하다. 사진은 SDB 투하시험 장면이다.
5. 차기전투기사업의 후보로 YF-23과의 경쟁에서 승리한 YF-22가 현재의 F-22로 발전했다.



포스에 대하여 '241 대 2'의 승리를 기록했다. 물론 랩터는 단 한 대도 격추되지 않고 말이다.

이 기록은 제5세대 전투기들이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인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에 불과하다. 특히 5세대 전투기들은 스텔스 능력을 특징으로 하여, 레이더에 거의 탐지되지 않는다. F-22 랩터는 단순히 레이더 탐지율뿐만 아니라 적 외선 탐지율도 현저히 낮추어 진정한 스텔스 성능을 발휘한다.

게다가 F-22는 더 나아가서는 '초소형 조기경보기'로 활약할 수 있다. F-22는 최첨단 기능을 갖춘 AN/APG-77 AESA 레이더¹⁾를 통하여 정밀한 탐색기능을 갖추고 있다. 비록 무장을 모두 사용하고 교전할 수 없더라도 조종석 전방에서 비행하면서 AWACS(공중조기경보기)가 탐지하지 못하는 공역까지 탐지하여, 아군기체에게 목표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F-22가 발사한 미사일을 더 좋은 위치에서 유도하여 정확히 목표를 공격할 수도 있다. 미군이 자랑하는 '네트워크 중심전'(Network Centric Warfare)을 F-22는 훌륭히 수행할 수 있다.

뛰어난 기동성 역시 랩터의 장점이다. 특히 각 23,500 파운드의 추력을 내는 F119-FW-100 엔진 2개는 추력편향 시스템을 갖추어 82노트의 저속에서 60도 받음각 상태로 조종이 가능하다. 이 엔진은 여기에 더하여 후연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마하 1.5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는 슈퍼크루즈 능력까지 보유하고 있다. 특히 F119 엔진은 스텔스 전투기용 엔진답게 무연기술을 적용하여 연기가 거의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외선 방출량도 최소한으로 줄였다.

우수한 성능이지만 생산은 종료

F-22의 무장은 주력 전투기치고는 다소 빈약해 보인다. 개전초기에 스텔스 성

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부격실에 미사일이나 폭탄 등의 무장을 수납하게 되는데, 공대공의 경우 AIM-9X 2발과 AIM-120C 6발, 지상 공격시에는 AIM-9X와 AIM-120C 각 2발에 1,000파운드 JDAM 2발을 장비할 수 있다. 하지만 제공권 장악 이후 스텔스가 불필요한 상황이라면 외부 장착대에 4발의 미사일과 600갤런 연료탱크 2개를 장착할 수 있다. 기관포로는 M61의 경량화 모델인 M61A2을 장착하며, 480발의 탄약을 탑재한다.

현재 랩터는 블록30형이 생산 중에 있다. 랩터는 초도작전능력형인 블록10, JDAM 및 SDB 운용이 가능한 블록20, 대공제압능력을 갖춘 블록30 등으로 구분된다. F-22의 최종적인 완성형은 블록40으로 완전한 네트워크 전투능력과 통합된 정보/감시/정찰능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한편 전자전 능력을 갖춘 블록50 업그레이드 계획도 있었으나, 예산문제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원래 미 공군은 F-22 랩터를 무려 750대나 도입하려고 했다. 하지만 냉전이 끝나고 예산이 줄어 미국도 대당 1억 5천만 달러(한화 약 1천8백억 원)²⁾짜리 전투기를 마음대로 사는 것은 부담스러웠던 모양이다. 구매대수는 648대, 438대, 339대, 279대, 183대 등으로 해가 갈수록 줄어만 갔다. 그러다가 결국 2009년 10월 F-22는 187대의 구매를 끝으로 생산을 종료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특별히 뛰어난지만 너무도 비싼 F-22 대신에 F-35에 예산을 더 주겠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

여기에 더하여 F-22는 해외판매가 법률로 금지되어 있다. 미국의 전략물자이기에 해외에 수출하여 미국의 전략적 우위를 상실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이나 이스라엘의 끈질긴 러브콜에도 불구하고 F-22가 추가로 생산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F-22 랩터는 소수정예의 제공전투기로서 21세기의 창공을 지배할 것으로 보인다. **AF**

1) 능동형 전자주사식 레이더에 대해서는 국방일보에 게재된 'AESA 레이더(임상민)'의 글을 참조바람. <http://kookbang.dema.mil.kr/kdd/CultureTypeView.jsp?writeDate=20090217&menuCd=2004&menuSeq=45&kindSeq=1&menuCnt=30917>

2) 2009년도 기준으로 엔진 및 기체, 생산관리, 생산설비 및 변경비용이 포함된 가격, 즉 플라이-어웨이 코스트(Flyaway Cost). F-22의 총사업비는 약 650억 달러(한화 약 78조원)로 추산된다.

세계 주요국들의 미래전 전망과 우리의 대비방향

2010년 발표된 미 국방부의 4년 주기 국방검토보고서(QDR)에서 보듯이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군사선진국들은 미래의 위협을 바탕으로 군사력 건설을 경주하고 있다. 즉, 각국들은 비국가 행위자들에 의한 적대행위, 불량국가에 의한 WMD 확산, 사이버 공간에 대한 불특정적인 도발 등을 미래의 주요 위협으로 꼽고 있으며, 이 위협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군사력 건설의 초점이 모이고 있다. 이 점은 랜드(RAND)를 비롯한 안보관련 해외 주요 연구소들의 연구주제 절반이 이들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현재 이들 연구소들은 이러한 위협들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의 상호작용으로 미래전이 과연 어떤 형태로 시험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연구결과에 나타난 미래전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이 종합될 수 있다.

첫째, 향후에는 제4세대 전쟁이 더욱 활발해짐으로써 전쟁 수행의 패러다임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데 의견이 모이고 있다. 걸프전과 코소보전의 전쟁양상이 정규군 중심의 기동전이었다면, 아프간전 및 이라크전의 안정화 단계에서는 정규군 중심의 기동전이었던, 아프간전 및 이라크전의 안정화 단계에서는 정규군과 비정규군의 복합수행, 심리전 등 다차원 영역에서 정치적 목적 달성을 추구하는 제4세대 전쟁이 주를 이루었다. 이와 같은 4세대 전쟁을 통하여 저항세력들은 주로 네트워크를 통한 테러활동, 소규모의 지속적이고 누적된 공격 등의 비대칭 전략을 통해 장기전을 도모했고, 그 결과 군사 강대국을 상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것이다.

둘째, 사이버전과 무인로봇전, 전자전이 주요 전쟁형태로 부각될 것이며, 이와 관련된 무기체계들이 핵심적인 전쟁수단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미국은 테러분자나 상대적으로 힘이 열세인 적에 의한 사이버 공격을 제2의 진주만 사태로 규정하고 다방면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아군의 인명손실 방지 및 이동, 적에 대한 효과적 공격을 위한 무인항공기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되고 있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무기체계들이 전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를 공격 및 방호함으로써 전송에 기여할 수 있는 전자전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셋째, 연구 사례들을 분석해 보면 걸프전 이후 전쟁들은 대부분 합동/연합작전의 형태로 수행되었으며, 특히 공지해 전력에 의한 합동작전이 긴밀히 수행됨으로써 전력발휘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이다. 아프간전과 이라크전에서는 미군의 항공력이 공중우세 달성 후, 지상 특수군과의 협조 하에 근접항공작전을 수행함으로써 상대국들의 전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었다. 다만 이런 와중에서 각 군 간 전장공간관리의 문제점이 대두된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시사점들은 한국군에 다음과 같은 미래전 대비 방향을 제시해 준다. 첫째, 부각되고 있는 제4세대 전쟁 등 변화된 전쟁 패러다임을 고려한 군사 전략 개념발전 및 교리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정규전뿐만 아니라 비정규전을 중심으로 하는 각종 분쟁에서 군사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공보 심리작전, 도심 근접항공지원작전, 대민지원작전 등 확장된 임무에 대한 작전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종칼 없는 21세기형 전쟁으로 불리는 사이버전에 대한 관심제고 및 무인항공기의 운용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래전의 핵심전력으로서 무인항공기체계를 집중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아군 정밀무기체계의 효율적인 운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전자전 전력 및 운용 능력은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이다.

셋째, 합동전장에서 효율적인 합동작전 수행을 위해서는 각 군 간의 명확한 역할 정립 및 전장공간관리체계의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현대전에서 합동작전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각 군의 능력을 결합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군사전략 및 작전운영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천안함 피격이나 연평도 포격 사건에서 보듯이 우리가 평소 상정하였던 미래전은 더 이상 미래가 아닌 현재에도 진행 중에 있으며, 이에 대비한 우리의 거시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과 꾸준한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 **AF**

명예와 군기의 상징, 미 공군 의장대



워싱턴 D.C의 볼링 공군기지 소속 의장대 군기 위병의 훈련 모습

흐트러짐 없는 자세와 눈빛. 일병 게리 이라는 미동도 없이 다음 명령을 기다리며 서 있다. 일렬로 선 다른 여섯 명의 병사들은 게리 일병과 똑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다.

“준비!” (“Ready!”)

이 명령 구호에 총 일곱 명의 병사들이 손을 위로 쪽 뺐은 후, 매우 유기적인 동작으로 M1 카빈 라이플총 손잡이를 끌어내린 후 방아쇠를 꼭 잡아당긴다.

“파방, 파방, 파방!” (Bang, bang, bang)

게리 일병은 순간 표정이 일그러진다. 하나의 총성만 들렸어야 했는데, 발포 소리가 한 발 그 이상으로 들려버렸다. 이는, 즉 7발의 총탄이 거의 동시에 발포되

지 않아 한 방의 대포소리를 못 만들어낸 것이다.

“형편없다, 너무 형편없어. 다시 실시한다. 더 잘할 수 있도록.”

(“Not good enough at all. Do it again. Do it better.”)

병사들의 훈련을 보고 있던 한 하사관이 소리친다. 게리 일병은 불평하지 않는다. 그는 그의 팀이 더 잘해야 됨을 알고 있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 믿고 있다. 비록 매일의 훈련이 따를지라도, 이번은 아니었지만, 다음은 실전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라는 타협은 없으며, ‘연습’이라는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 오직 완벽함만이 필요할 뿐이다. 완벽함만이 존재하는 이곳. 이곳이 바로 미 공군 의장대이며, 이들에게 ‘탁월함’이란 그저 판에 박힌 화려한 수식어구가 아니라, 바로 그 자체이다.



미 공군 의장대 소속 조세프 하사가 일련된 드릴로지에서 마이애스 하사의 추도식을 지원하고 있는 모습. 마이애스 하사는 버지니아 주 호프웰 출신으로 2010년 4월 4일 아프가니스탄에서 폭발물에 의해 순직했다. 그의 가족들은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1991년 금지령을 해제한 이래 최초로 델라웨어 도버 공군 기지에서 하사의 유해에 대한 매스컴 보도를 허락했다.

의장대의 전통

멋진 드릴시범으로 관객들의 환호를 사든지, 순직한 동료로 위해 장례의식을 지원하거나, 혹은 기수단 임무를 수행하든지 간에, 미 공군 의장대는 대중의 관심 속에 존재하게 된다. 어떨 땐 사인을 해야 되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그들을 격려해야 될 때도 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정예의 공군 의장대원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들의 사명이 미 전역과 세계에 미 공군을 대표하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의장대의 주된 임무는 첫째로 공군 소속 군인과 그들 가족구성원이 죽음을 맞아 엘리팅 국립묘지에 안치될 때, 공군으로서의 마지막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장례의식이나 안장의식을 지원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미 전역에 분포한 모든 공군 소속대원을 대표하여, 워싱턴 D.C.에서 치러지는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위 인사나 해외 귀빈이 미국 국방부나 백악관, 워싱턴 소재 앤드류 공군 기지를 방문할 때 공군을 대표하여 환영회 및 환송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알링턴 국립묘지 근조환 행사 및 사령부 이취임식 및 퇴임식 행사에도 참여하고 있다.

의장대 미디어담당 에릭 앨런 하사는 "의장대는 다양한 일을 하고 있지만, 모두 매우 의미 있는 일들이다."라고 전한다. 미 공군 의장대는 기수단과 관 운구 대원, 그리고 조총발사 대원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드릴 팀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우리는 해가 뜨나 해가 지나 항상
대중의 관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동하는 매 순간마다
저희는 항상 미 공군을 대표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앨런 하사 -

이런 시범비행은 미국 전역에서 하루에 평균 10회, 일 년엔 거의 3천 회 정도 행해지고 있다. “우리는 해가 뜨나 해가 지나 항상 대중의 관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동하는 매 순간마다 저희는 항상 미 공군을 대표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앨런 하사가 말했다.

그래서 240명 정예의 의장대원들은 행진 및 드릴시범 연습에 땀 흘리고 있으며, 그 외에도 장례의식에서 퍼레이드 행진 참가, 대민행사 드릴팀 시범 지원까지 완벽한 임무수행을 위해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내고 있다.

의장대 조총 발사 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로버 반하트 일병은 “우리가 무

16명의 의장대 드릴팀원들이 뉴 멕시코 주 홀로맨 공군기지에서 시범을 보이고 있는 모습. 이번 시범을 통해 공군의 일사불란한 모습과 절도를 보여주었다.



“장례의식에 지원을 간 경우에는,
아마 가족 분들에게 저희의 모습은 군인에 대한
그들이 마지막 기억될 것입니다.”라며
“그래서 저희는 그 모습이 아름답고 위엄 있는
모습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반하트 일병 -



언가를 하고 있다면, 그건 실전이거나 훈련, 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라고 말한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의장대가 시범하는 모든 동작들은 완벽해야만 한다. 손 동작 하나하나 흐트러짐이 없고, 방아쇠는 일제히 당겨져야 하며, 드릴 시범은 능숙해야 한다.

‘연습이 완벽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더 고된 연습은 의장대의 완벽한 시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우리는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기에, 이 노력은 결국 우리를 더욱 멋지게 변화시킬 겁니다.” 반하트 대원이 말했다. 또한 “저희가 이곳 워싱턴 D.C. 볼링 공군기지에 있기 때문에, 더욱 외부에 방문할 기회도 많아질 겁니다.”라고 덧붙였다. 전사한 병사들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지역 학교의 학생들과 어린 아이들, 혹은 전 대통령의 안장의를 지켜보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의장대를 지켜볼 것이다. 어떤 행사이건, 얼마나 많은 수의 사람들이 참가했든지 상관없이, 의장대의 유일한 목표는 ‘탁월함’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자부심으로 공군을 대표하는 것이다.

의장대의 명예

완벽한 임무수행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의장대의 ‘완벽한’ 임무수행 또한 마찬가지다. 한 치의 미동 없이 서 있거나, 눈썹의 움직임도 없이 몇 시간 동안 대기하거나, 유니폼을 입고도 구호명령에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비나 눈을 흠뻑 맞는 상황일 수도 있고, 태양빛에 피부가 까맣게 탈 수도 있다. 섭씨 37도를 육박하는 찌는 듯한 더위에도, 영하의 날씨에도 의장대원들은 제복을 입고 흐트러짐이 없는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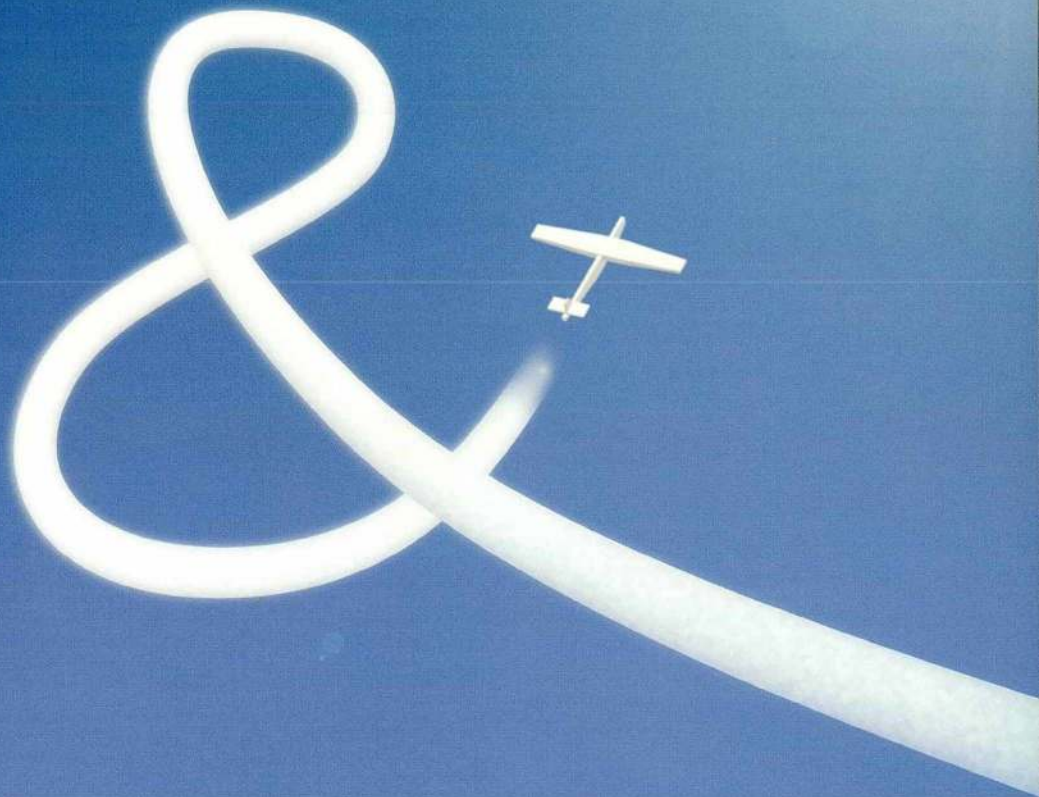
오늘날 미 공군 의장대는 지원자를 모집하여 엄격한 선발기준으로 의장대

원을 선발하고 있다. 의욕 있는 자세와, 특히 높은 수준의 신체적 요건과 우수한 신체등급을 갖춘 자만이 의장대원이 될 수 있다. Allen 병장은 “제가 했던 일들 중에서 의장대원이 된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라며, “저희가 하는 모든 일들은 결코 저희 자신들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저희가 대표하고 있는 공군가족 모두를 위함입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의장대의 헌신

공군 의장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신병이라면 기초 훈련 때 우선 지원신청을 한 다음에 훈련소 퇴소 후 볼링 공군기지를 방문해보거나, 현역이라면 공군 웹사이트 www.honorguard.ag.mil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의장대 선발을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선발이 되면 볼링 공군기지에서 8주 간 의장대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훈련이 실시된다. 미 공군 의장대는 훌륭한 의장대원 지원자들을 항상 기다리고 있다.

알렌 하사는 “의장대 임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뜨거운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의장대원으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고, 중요한 임무수행을 통해 얻는 자부심을 느끼고 싶어한다면, 아마 다음 의장대원은 바로 당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전한다. 공군 의장대는 전통을 자랑하고, 명예로우며, 오직 ‘탁월함’만이 용납된다. 마지막으로 반하트 일병은 자신의 의장대 임무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지금이야말로 제 인생 최고의 순간 중 하나일 겁니다. 만약 제가 다시 의장대원이 되더라도, 저는 기쁘게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AF



하늘을 향한 동심은 끝없이...

하늘과 우주를 향한 꿈과 희망



공군 IN

현빈, 징병제, 마이클 샌델

영웅好걸(Girl),
빨간 마후라를 품나게 두르다!

연예인의 군복무는
당연한 일

* 기획특집

* 참모총장 스케치

* AIR FORCE MONTHLY

벌레를 위해 세운 기념비

* 생각하는 그림

파이팅 펄콘,
JDAM으로 더욱 강해졌다!
그런데 JDAM 이 뭐지?

* 알수록 재미있는 공군!

스타와 공군의 아름다운 동행 ①

[한 인기배우의 군입대를 바라보는 시선]

현빈,
징병제,

마이클 샌델



지난해 12월 어느 날 오후, 같은 신문사 후배 기자의 전화가 왔다.

“선배, 현빈이 해병대 지원했다고 하는데 알고 있죠?”

“뭐 현빈? 장희빈은 알겠는데, 현빈은 누구지. 조선시대 임금 후궁인 빈(嬪) 가운데 한 명이나?”

“아니 지금 그런 썰렁한 농담 할 때가 아니고요, 지금 인터넷에선 난리가 났거든요. 현빈이 해병대 간다고...”

“아니, 현빈이 누구데?”(당시 나는 현빈이 누구지 정말 몰랐다.)

“진짜 답답하네. 선배는 〈시크릿 가든〉도 안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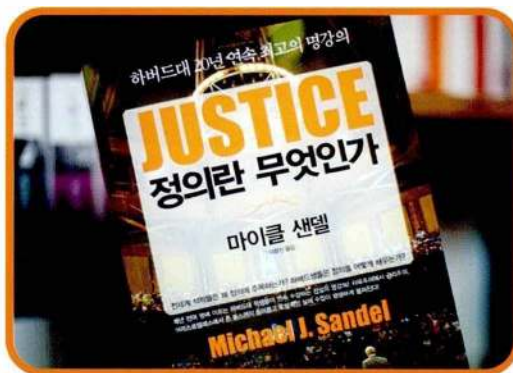
“시크릿 가든? 아! 동화 〈비밀의 화원〉, 그건 읽어봤지.”(1909년 출판된 〈비밀의 화원(The Secret Garden)〉은 영국출신 미국 작가인 프랜시스 버넷의 동화로 국내에도 세계명작 동화로 번역됐다.)

“.....”(휴대폰 수신구에선 지구 온난화로 빙산이 녹아내려 무너지는 듯한 후배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미안한데, 내가 진짜 몰라서 그래. 일단 내가 현빈이 누구지 알아보고 다시 이야기하자.”

나중에 물어보니 현빈의 열렬한 팬인 후배는 현빈의 해병대 지원에 대한 군의 반응이 궁금해 국방부 출입기자인 나한테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그 후배에겐 무지 미안하지만, 그땐 현빈이 누구지 정말 몰랐다. 참고로 내가 왜 현빈을 몰랐냐면, 6년 전에 집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없앤 뒤 지금까지 드라마를 본 적이 없다. 현빈뿐만 아니라 요즘 인기 있다는 연예인들 얼굴은 거의 모른다.

후배와 통화를 한 뒤 인터넷을 검색해 현빈이 누구지, 드라마 〈시크릿 가든〉이 뭔지 알아봤다. 그제야 “이렇게 유명한 현빈이 나이 서른에 해병대 지원한 게 기사가 되겠구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현빈 입대에 쏠린 세간의 뜨거운 관심은 못마땅했다. 남들 다가거나 갔다 온 군대를 현빈이 간다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난리를 피우는지 괜한 심통이 났다. 한해 20만 명이 넘는 젊은이가 입대하는데도 유독 현빈같이 잘 생기고 돈 많이 버는 인기 연예인에만 쏠리는 관심이



도대체 정당하냐는 말인가.

그래서 나는 현빈의 해병대 지원에 대한 관심을 끄기로 했다. 그러다 베스트셀러로 유명해진 미 하버드대 교수인 마이클 샌델이 쓴 <정의란 무엇인가>를 최근 읽으면서, 현빈 해병대 입대를 다시 한 번 되짚어보게 됐다. 통상 인문학 관련 책은 재미없고 어렵다는 이유로 3천부만 팔리면 베스트셀러 취급을 받는다. 그런데 <정의란 무엇인가>는 지난해 70만부나 팔리면서 16주간 판매부수 1위를 차지한 초대형 베스트셀러다. 왜 사람들은 이 책에, 정의라는 주제에 열광하는가? 불의가 판을 치는 현실에 좌절하고 정의에 목말랐던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없는 정의를 이 책에서 찾으려고 했던 것 같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었다.

나는 현빈의 해병대 지원에 쏠린 관심도 <정의가 무엇인가>가 베스트셀러가 된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돈 많고 권력 있는 집안의 자제들이나 유명 탤런트, 운동선수들이 온갖 알קות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면제받거나 현역 복무에서 빠지는 반면에 서민들 자제는 예외없이 현역으로 군복무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현빈은 '뽕질이 연예인'에 대한 선입견을 깬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현빈에게 열광한다.

<시크릿 가든> 방영 이후 현빈은 'CF킹'이 됐다고 한다. 현빈은 그전에도 5억원가량 모델료를 받던 A급 광고모델이었는데 <시크릿 가든> 성공 이후 모델료가 최대 7억원까지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차도남(차가운 도시남) 현빈은 광고 몇 편만 찍으면 수십억 원을 벌 수 있었지만 그가 해병대 신병 훈련을 마치고 '이병 김태평'이 되면 한 달 월급이 7만 8,300원이다. 현빈의 군복무 기간 광고 수입 손실만 따져도 수십억 원이 넘는다. 그런데 현빈은 누구처럼 멀쩡한 이빨을 마구 뽑지 않고 해병대에 지원했다.

현빈의 입대에 쏠린 비정상적일 정도로 과도한 관심의 바닥에는 '우리 사회가 공평하고 정의로워야 한다'는, 정의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현빈이든 누구든 모든 젊은이를 입대시키는 징병제와 가고 싶은 사람만 자발적으로 입대하는 모병제 가운데 어떤 병역제도가 정의로운 것일까. 한때 모병제 전환이 진보진영의 평화정책으로 제시된 적이 있었다. 과연 징병제는 억압적이고 모병제는 정의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마이클 샌델 교수는 "징집과 고용 가운데 어느 게 옳은가"라고 진지하게 묻는다. 미국 남북 전쟁 당시 북군은 처음엔 지원병제였다가 군인이 부족하자 징병을 시작했다. 하지만 징집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대신 복무할 수 있었다고 한다. 당시 미국 신문마다 대신 복무할 사람을 찾는 구인 광고가 넘쳐났고, 병역의 의무가 시장에서 거래됐다.

미국 남북 전쟁 때의 이 병역제도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정당하지 않다고 대답할 것이다. 돈 있는 사람이 대리인을 고용해 자기 대신 싸우게 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기 때문이다. 이쯤에서 마이클 샌델 교수는 다시 묻는다. 부자들이 자신의 전쟁을 대신 싸워줄 사람을 고용했다는 이유로 남북전쟁 때의 병역제도를 부당하다고 말한다면, 현재의 모병제에 대해서 똑같이 반박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모병제는 우리가 입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고용해 그에게 목숨을 걸고 대신 전쟁을 치러 달라는 것이 아니냐고 샌델 교수는 묻는다.

미국은 베트남전쟁 때 징병제가 대학가 반전 시위에 기름을 붓자, 1973년 미군이 베트남에서 단계적으로 철수하면서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바꿨다. 최근에 모집된 미군 가운데 25% 이상이 정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다고 한다. 2004년에 뉴욕 시의 입대 자원자 70%가 저소득층 출신의 흑인과 히스패닉(중남미 출신)이었다고 한다.

미국 명문 대학인 프린스턴 대학의 경우 징병제가 있던 1956년 졸업생 750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450명이 졸업 후 군에 입대했다. 이에 비해 2006년에 이 대학 졸업생 1,108명 가운데 입대한 사람은 9명이었다. 상황이 이쯤 되니 미국에선 모병제가 실재론 빈민개병제(貧民皆兵制)란 한탄이 나온다고 한다.

미국 상원 의원 가운데 자녀가 군에 입대한 경우는 2%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한국전쟁에 참전해 훈장을 받은 찰스 랭글 민주당 의원은 "미국 정책 입안자들의 자녀도 베트남처럼 참전 부담을 나눠야 했다"며 이라크 전쟁은 애초에 시작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국이 100% 자원병 제도를 채택한 뒤 군 복무 할당에서 생기는 정의의 문제가 대중과 여론주도층의 관심에서 사라진 것이다.

하지만, 징병제에서도 일부 계층이 반칙과 특권으로 병역을 기피하거나 폭력 같은 병영생활의 부조리가 온존한다면 '정의'는 뿌리부터 크게 흔들린다. 근대 국민국가에서 형성된 징병제의 전제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애국심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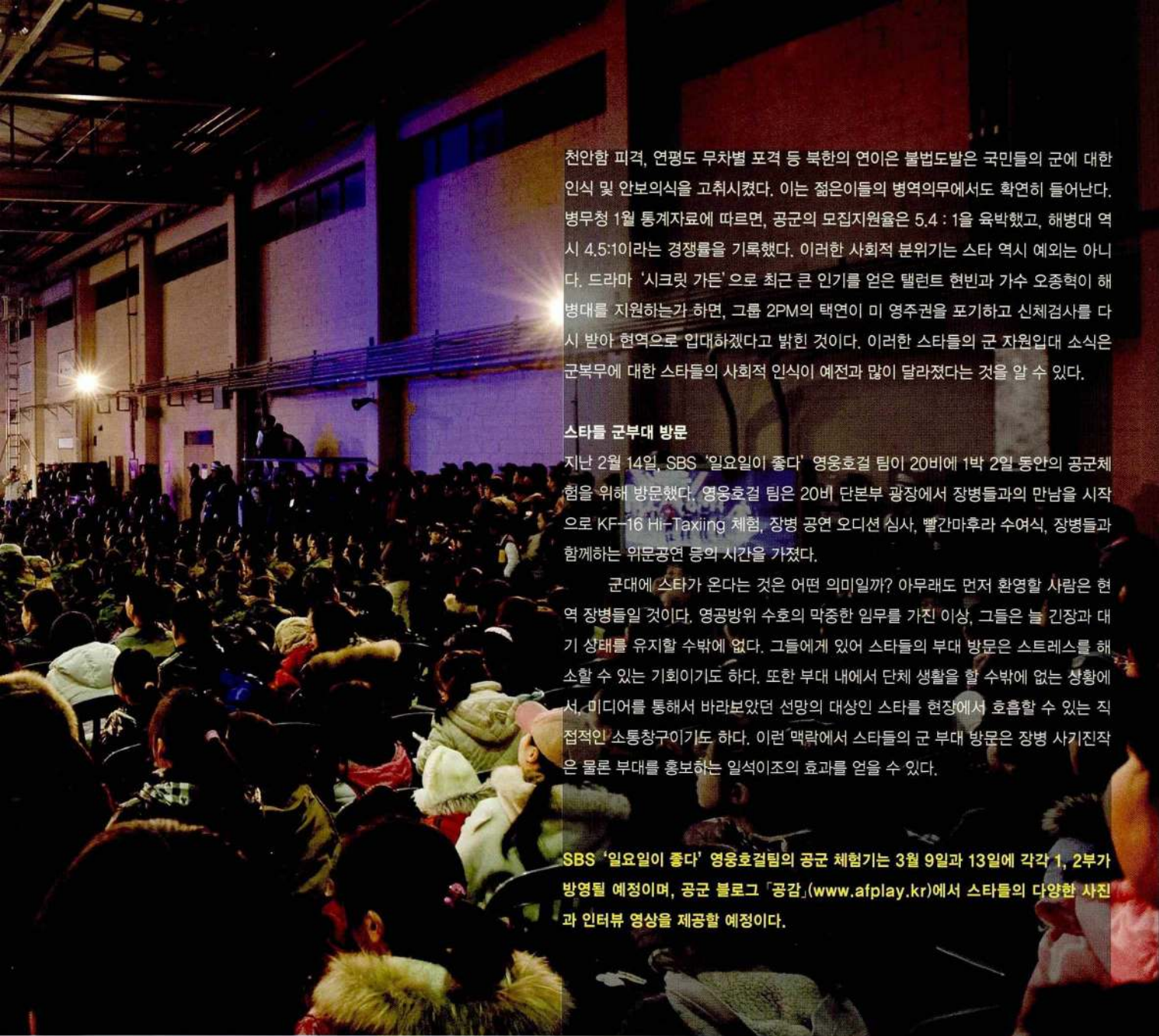
나는 애초 얼굴도 몰랐던 현빈의 군 입대를 계기로 징병제, 모병제 중 '정의란 무엇인가'를 놓고 며칠을 고민해봤지만, 단칼에 두부 자르듯 답을 내리긴 쉽지 않았다. 샌델 교수도 "군인을 징집해야 할지, 고용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려면 "민주사회의 시민이라면 서로에게 어떤 의무를 지며, 그 의무는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라는 더 포괄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며 즉답을 내놓지 않고 빠져나갔다. 현실에선 징병제, 모병제 가운데 어느 한쪽 손을 번쩍 들어주기가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AF**

스타와 공군의 아름다운 동행 ②

[SBS '영웅호걸', 제20전투비행단 부대체험]

영웅호걸(Girl), ▶ 빨간 마후라를 품나게 두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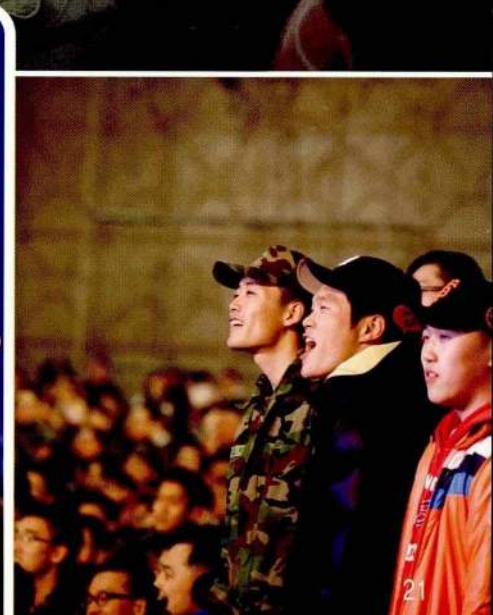
천안함 피격, 연평도 무차별 포격 등 북한의 연이은 불법도발은 국민들의 군에 대한 인식 및 안보의식을 고취시켰다. 이는 젊은이들의 병역의무에서도 확연히 들어난다. 병무청 1월 통계자료에 따르면, 공군의 모집지원율은 5.4:1을 육박했고, 해병대 역시 4.5: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스타 역시 예외는 아니다. 드라마 '시크릿 가든'으로 최근 큰 인기를 얻은 탤런트 현빈과 가수 오종혁이 해병대를 지원하는가 하면, 그룹 2PM의 택연이 미 영주권을 포기하고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 현역으로 입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러한 스타들의 군 자원입대 소식은 군복무에 대한 스타들의 사회적 인식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타들 군부대 방문

지난 2월 14일, SBS '일요일이 좋다' 영웅호걸 팀이 20비에 1박 2일 동안의 공군 체험을 위해 방문했다. 영웅호걸 팀은 20비 단본부 광장에서 장병들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KF-16 Hi-Taxiing 체험, 장병 공연 오디션 심사, 빨간마후라 수여식, 장병들과 함께하는 위문공연 등의 시간을 가졌다.

군대에 스타가 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아무래도 먼저 환영할 사람은 현역 장병들일 것이다. 영공방위 수호의 막중한 임무를 가진 이상, 그들은 늘 긴장과 대기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들에게 있어 스타들의 부대 방문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또한 부대 내에서 단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미디어를 통해서 바라보았던 선망의 대상인 스타를 현장에서 호흡할 수 있는 직접적인 소통창구이기도 하다. 이런 맥락에서 스타들의 군 부대 방문은 장병 사기진작은 물론 부대를 홍보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SBS '일요일이 좋다' 영웅호걸팀의 공군 체험기는 3월 9일과 13일에 각각 1, 2부가 방영될 예정이며, 공군 블로그 '공감'(www.afplay.kr)에서 스타들의 다양한 사진과 인터뷰 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연예인들에게는 군대를 방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대중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들은 움직인다. 특히 군대는 연예인들이 자신들을 홍보하기에 안성맞춤이다. 장병들은 사회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발적인 호응을 발산해낸다. 이것은 갓 데뷔한 신인에서부터 중년의 스타들에게까지 큰 힘이 된다. 공연과 촬영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간 영웅호걸 출연진에게 1박 2일 동안 20비에서 느낀 소감을 실제로 들어보았다.

공/ 통/ 질/ 문/

1. 제20전투비행단에서 체험했던 것들 중에서 가장 인상에 남았던 것은 무엇인가?
2. 최근 남자연예인들의 자발적인 현역입대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3. 대한민국 공군장병들에게 한 마디만 해주신다면?

■■■ 노_사_연

1. 하이택싱(Hi-Taxiing)을 지켜봤던 것이 제일 기억에 남네요. 전투기 조종사들의 콜사인과 수신호가 너무나도 멋졌습니다. 전투기 조종석에 직접 앉아봤었는데, 저와 딱 맞더라고요. 전투기 소리 역시 너무너무 가슴이 뛰었구요.

2.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직업적 특성상, 연예인이라면 입대하는 것이 쉽지 않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봐요. 엄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정한 남자가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 자랑스럽다고 생각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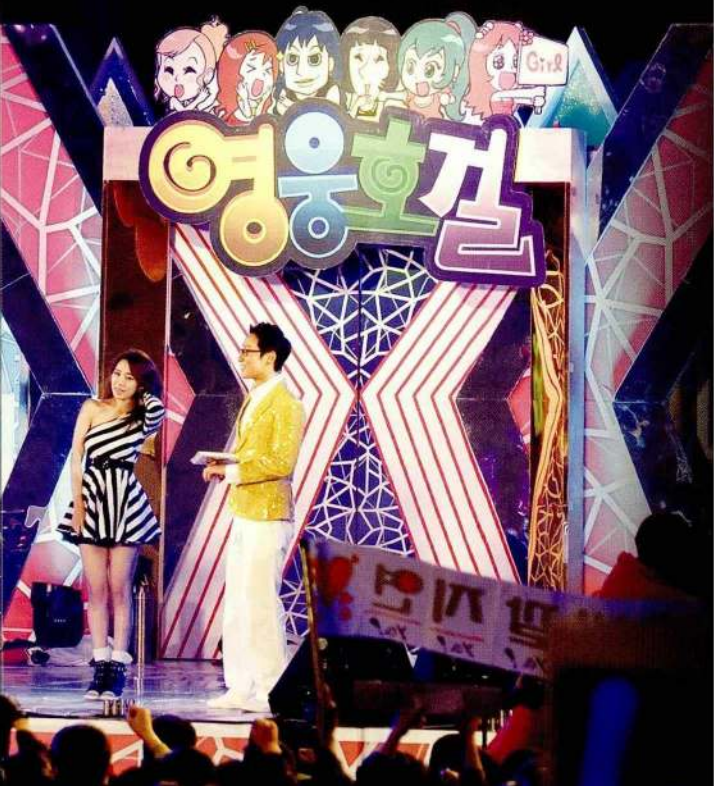
3. 공군을 직접 체험하면서, 공군이 하늘을 책임지고 있는 임무를 봤어요. 안팎에서 군인이어서 평소 여군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요. 공군을 방문하고 깜짝 놀랐어요. 장병들이 좋은 환경에서 잘 지내는 모습을 보고 많이 알심이 드네요. 대한민국 공군의 늠름하고 밝은 모습에 너무나도 반했습니다. 공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강해질 수 있는 것 같아서 안심이 드네요. 또한 자긍심으로 들고요. 우리나라 만세! 대한민국 공군 만세!

■■■ 지_연(티아라)

1. 뭐니 뭐니 해도 하이택싱이었죠. 보기 힘든 전투기를 직접 타봤다는 것이 가장 자랑스럽고 재미있었습니다.

2. 아직 어려서 깊이 생각은 안 해봤지만, 저희 아빠도 다녀오셨고 전 오빠도 나이가 되면 가겠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구요. 군복을 입어도 너무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3.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 공군으로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저 지연이가 항상 장병오빠를 무사히 군 생활 마치시라고 기도할게요.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거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다음에 또 뵈요.





유인나

1. 무겁지만 멋진 비행복을 착용하고, 전투기를 타던 것이 정말 기억에 남네요. 정말 특별하고도 긴장된 멋진 경험, 감사드립니다.
2. 직접 가서 보니,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반면 매력적이면서도 우정과 애국심이 생기는 곳 같아요. 유명인사로서 모범적으로, 자발적으로 입대하는 점은 군 입대를 앞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고 용기를 주는 것 같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3.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모습이 얼마나 멋진지 모르실거예요. 저도 이번에 진심으로 여러분께 반하고 왔어요. 항상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아이유

1. 전투기의 모습과 빨간 마후라가 너무 멋졌어요.
2. 멋지고, 건강히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어요.
3. 직접 가서 보니 정말 우리 오빠 같고, 멀게만 느껴졌던 군인 오빠들이 가깝게 느껴졌어요. 항상 몸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때 가서 많은 에너지를 받고 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노홍철

1. 공군 특유의 멋스러움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빨간마후라와 조종복을 착용해 본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이택싱 체험이 최고였습니다. 비록 직접 비행해 보지는 못했지만 가까이서 첨단전투기의 실제 기동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탑승한 영웅호걸 멤버들과 교신을 나눈 경험은 잊지 못할 겁니다.

2. 노코멘트

3. 먼저 늘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일과와 작업 그리고 때때로의 훈련, 정말 고생스러우시겠지만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공군 장병 분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제 경험으로는 병영생활의 그 어떤 체험들 그리고 사소한 갈등들도 사회에서는 반드시 큰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모든 것을 웃는 얼굴로 감사히 받아들이시고 몸 건강히 남은 군 생활, 추억 많이 만드시며 잘 마무리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AF



스타와 공군의 아름다운 동행 ③
[전역을 앞둔 조인성 병장 인터뷰]

“연예인의 군복무는
당연한 일,

푸른 제복이 주는
소중한 가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조인성 병장의 뜻다한 이야기는 공군 블로그 「공감」
(www.afplay.kr)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2009년 4월 6일 입대당시 모습



조인성 병장은
공군군악대 대원으로
궂직궂직한 공군행사에
MC를 봐왔다.

따사로운 봄날의 햇살이 비치는 오후, 부대 정문에 들어섰다. 갑자기 2년 전이 떠올랐다. 지난 2009년 4월 6일, 인기 절정의 배우였던 조인성은 세간의 주목을 받으며 공군 교육사령부에 입대하여 공군 병사로서 군복무를 시작하였다. 공군 군악대의 일원으로 다양한 군 관련 행사에 MC를 보며 공군을 국민에게 알리는 역할을 성실히 이행해 온 조인성 병장에게, 군 생활을 22개월 정도 마친 여느 병사와 같이, 어느덧 군복무를 아름답게 마무리해가며 사회적응을 준비할 시점이 다가온 것이다.

지난 1월 27일, 조인성 병장은 병무청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병무홍보대사로서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특히 유명 연예인으로서 병역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우리 사회에 큰 귀감이 됨은 물론 병역의무자의 자발적인 병역 이행 풍토 확산에도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그에게 있어 다가오는 5월 4일은 군복무를 시작한 지 정확히 24개월 29일이 경과한 날이다. “군무 일수 하루 차이로 연가를 하루 더 받지 못해 절망감과 배신감을 느꼈다”는(웃음) 조인성 병장에게 그날은 공군으로서 복무하는 마지막 날이기도 하다. 조인성 병장을 만나 공군 군악대원으로 복무해 온 군 생활의 이야기와 스타와 공군이 아름답게 동행하는 길에 대해서 들어보았다.

Q. 제대가 얼마나 남았는지?

A. 오늘부로(2월 22일 기준) 약 71일 남았습니다. 제대를 하게 되면 다시 배우로 돌아가 배우로서의 존재감과 정체성을 다시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Q. 지금 병장 5호봉이면 예전에 비해 월급도 많이 올랐을 텐데 월급을 주로 어디에 활용하는지?

A. 십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월급이 나라사랑카드에 바로 입금되기 때문에 통장잔고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입대 후 결코 집에서 돈을 타 쓴 적은 없습니다. 순수하게 제 월급을 가지고 생활을 했죠. 너무나도 감사하게 팬 분들이 이런저런 간식을 보내주셔서 군악대원들과 함께 잘 나눠먹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서, 팬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Q. BX에서 가장 좋아하는 주전부리는 무엇인가?

A. 앞서 언급했다시피, 팬 분들이 먹을거리를 풍족하게 보내주셔서 BX를 자주 가는 편은 아니지만 무더위 속에서 연습 후에 동료들과 함께 아이스크림을 즐겼고 겨울에는 따뜻한 커피가 기억에 남습니다. 동료들과 이렇게 소소하지만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처음 입대했을 때, 최선임이 스넥바를 데리고 가 힘내라고 응원해주던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Q. 군 생활 속에서 가장 활력소가 되었던 걸 그룹이 있었다면?

A. 사회에 있을 때 걸 그룹에 대해 관심이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군에 있다면 걸 그룹 관련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저 역시 걸 그룹을 안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만, 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받다보면 누구를 좋아해야 될 것 같다는 강박관념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실 특정한 걸 그룹을 좋아한다기보다, 야외에서 동료들과 땀 흘리며 운동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군무지에 미군기지가 같이 있다 보니, 축구나 소프트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어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이등병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는 무엇인가?

A. 제가 현재 군악대에서 서열 No. 3입니다. 하지만 실권자였던 시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등병에게 최대한 말을 아끼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 때는 처음이고 낯선 환경에서 긴장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선임이 말을 건네는 것조차도 스트레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신 새로 온 이등병에게 혼자가 아니라 우리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려고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조인성 병장의
군악대 생활 모습

Q. 월간 「공군」과 블로그 「공감」을 자주 보는지?

A. 월간 「공군」은 공군 어느 부대를 가더라도 볼 수 있어서 자주 접했고, 「공감」은 당직을 설 때 많이 보게 됩니다. 기억에 남는 기사는 월간 「공군」 2010년 4월 호에 실렸던 공중급유기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공중급유기가 한국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저 역시 공군인입니다. 아무래도 항공기에 대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2011년 1월호에 실렸던 스텔스 전투기에 관한 기사도 재밌게 읽었습니다. 차기 FX사업에서 좋은 결과를 맺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Q. 자신을 어떤 선임, 어떤 후임, 어떤 동기라고 생각하는가?

A. 미안한 감정이 앞섭니다. 선임들한테는 제가 나이가 많다보니,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면이 있을 겁니다. 동기들에게는 제 부족함을 채워주느라 좀 더 많은 따움을 흘려야 했을 것입니다. 후임들에게는 더 이해해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저 역시 단지 군악대의 일원인데, 가끔 본의 아니게 공연 후 제가 더 주목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동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Q. 최근 연예인들의 자발적인 군 입대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대한 조인성 병장의 생각은?

A. 연예인들이 자발적으로 군입대하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몇몇 연예인들의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국민들이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연예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피나 회피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인데, 아무래도 직업적 특성상 많은 주목을 받다보니, 두드러지게 비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연예인이라는 직업적 특성상 군 입대 시기에 많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소속사와의 기존 계약관계도 그 고려사항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군에 가기 전 무언가를 이뤄놓고 가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시기가 늦춰지는 것뿐이지, 결코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Q. 입대 예정 연예인들에게 군 선택로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관심 없는 사람들을 붙잡고 굳이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공군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제 얘기가 전달됐으면 합니다. 아무래도 군 생활이 선택이 아닌

의무이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보상심리도 많이 들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이때가 아니면, 나라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Q. 공군에서 대국민 홍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연예인을 모병한다면,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A. 솔직하게 국방홍보원과 비교해보면 공군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무기간의 차이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혹자는 3개월이라는 시간이 전체 인생에서 아주 작은 일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예인들에게는 물리적인 3개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업계의 특성상, 그 시간이면 판도가 달라집니다. 계약조건이 달라지고, 편성이 달라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공군이 더 새로운 색깔로 유인책을 잘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타마케팅은 '모 아니면 도'인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상품이 좋아야 합니다. 일방적인 홍보는 한계가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군대에 와서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플러스알파입니다. 스타가 주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연예인들을 모집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려 다양한 홍보 콘텐츠들을 개발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 재능 있는 사람들을 모병해서, 일종의 문화사절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공군 군악대에서 생활하면서 문화예술분야에 재능 있는 많은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문화예술 계통은 군 면제 혜택이 아주 극소수에게만 주어진다고 들었습니다. 나머지는 그렇지 못하죠. 몸을 쓰는 운동선수나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가들에게 2년이란 시간은 어려운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 미술, 음악, 무용 등 좋은 재능을 가진 친구들을 공군에서 모병하고 협업(Collaboration)을 통해 공군만의 색이 담긴 콘텐츠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홍보 수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 일정부분에 큰 기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연의 힘은 21세기에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화사절단을 잘 운영하여 군 장병 및 군 가족들을 위해 뮤지컬, 오페라, 각종 문화공연을 한다면 사기 진작은 물론 일종의 문화적인 기부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 낸다면 자연스레 입소문이 날 것이고, 공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자부심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Q. 공군 군악병을 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을 몇 가지 꼽아본다면?

A. 공군군악대가 장병들의 사기진작에 보탬이 되기 위해 격오지 순회연주를 할 때, 공군인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황병산에서 바라본 야경은 영화에서도 보기 힘들 정도로 멋진 모습이었습니니다.

또한 배우로서 활동했던 시기보다, 팬 분들과 더 잦은 호흡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영화 작업에 몰입하게 되면 작품이 끝나고 2~3주 정도 팬 분들을 찾아뵙는데, 지금은 평균 한 달에 한 번, 많으면 두 번까지 팬들과 만나는 기회가 많습니다. 팬들의 사랑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물론, 배우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팬 분들도 있습니다만, 지금 모습을 더 좋아해주는 팬 분들도 많아서 저 역시 기쁩니다.

그리고 군악대 공연 피날레 후 관객의 박수를 받을 때, 그 희열을 잊을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영화배우는 현장을 느끼기가 힘듭니다. 간혹 영화 시사회 때는 관객들을 찾아뵙지만, 결과물만 가지고 관계자들과 관객들에게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공군 군악대에서는 라이브의 감동, 그 모든 과정들을 직접 다 몸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무대에 서서 직접 들어보지 않으면 그 감동을 말로 표현하기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Q. 제대 후, 공군에서의 2년 동안의 군복무를 주변 지인들에게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A. 제가 현재 입고 있는 공군 약복의 뿌듯함은 입어본 사람만이 알 것입니다. 정말로 입기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자기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입고 싶어 하는 사람이 정말 그 제복을 입었으면 합니다. 북한의 불법적인 연평도 포격이 발생했을 때 F-15K가 연평도 상공에 떠 있었습니다. 공군이 아니면 F-15K의 위력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군인이라면 누구나 알 것입니다. 그 때 공군이 대한민국 영공에 있었다는 것, 그 자체가 제게는 큰 안정감과 공군인이라는 자부심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2009년 ADEX 행사와 2010년 강릉작전행사재연 때 실제로 F-15K를 본 적이 있는데 그 감동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공군이 있어서 정말로 대한민국의 영공이 든든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Q. 앞으로의 꿈과 계획은 무엇인지?

A. 좋은 사람이 되는 게 꿈입니다. 좋은 사람에게서 좋은 연기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좋은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 질문하신다면 잘 모르겠습니다. 군 입대는 제게 있어 그것을 찾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좋아합니다. 말로 표현하기 힘들지만, 연기가 매우 유연합니다. 눈빛이 좋습니다. 시쳇말로 잘 하는 배우인 것 같습니다.

전역 후 제일 먼저 여행을 떠나고 싶습니다. 공군 군악대원으로서 전국 각지를 돌며 새로운 경험을 많이 했지만 군인의 신분으로 생활하다보니 입대 전보다 시야가 좁아진 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좋은 공연과 책을 두루 섭렵하고 배우로서의 소양을 키우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언제 어느 작품과 역할이 들어오더라도 항상 준비되어 있는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바로 작품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기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슨 작품을 맡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드라마라면 좀 더 빨리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고, 영화라면 조금 늦어지겠지요.

Q. 마지막으로 현역 공군 장병들에게 한 마디를 남긴다면?

A. 명철보신(明哲保身)하시길 바랍니다. '이치에 밝고 분별력이 있어 적절한 행동으로 자신을 잘 보전한다'는 뜻입니다. 비록 5월이면 공군을 떠나게 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가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공군 장병 여러분의 모습을 전역 후에도 기대하겠습니다.

약 1시간 동안 조인성 병장은 때론 위트와 유머로, 때론 열변을 토하는 진지함으로 인터뷰에 응해주었다. 자리를 마무리하며 뜬금없이 던졌던 “결혼은 언제쯤 할 생각이요?”란 질문에 그는 잠시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내, “배우로서의 사명인 연기에 부담이 되지 않을 시기에 결혼을 하고 싶다”며, 연기에 대한 욕심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천상 배우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입대 후 지금까지 조인성 병장이 보여준 모범적인 군생활의 모습은 다른 연예인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클 것이다. 공군과 스타와의 아름다운 동행은 마침표가 아닌 또 다른 시작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AF**

인도·사우디·UAE 군사외교 활동



참모총장은 2월 8일부터 16일까지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를 차례로 순방하였다. 이번 출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KT-1, T-50 국산 항공기와 선진비행훈련 체계의 우수성을 해당 국가에 홍보하면서 방위산업 분야의 수출을 지원하고, 서울 ADEX 2011 계획도 소개하는 등 군사외교활동을 펼쳤다.

해당국가 공군 관계자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은 KT-1, T-50 국산 항공기와 선진비행훈련 체계에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추후에도 실무적인 협의를 이어감으로써 협력관계를 구체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백령도 주둔 공군/해병 장병 격려

참모총장은 설날을 하루 앞둔 2월 2일, 서해 최북단에서 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공군 제8215관제부대와 해병대 6여단을 방문, 노고를 치하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날 참모총장은 해병대 6여단에서 현황보고를 받고 “북한의 지난 연평도 포격 도발시 해병대 장병들이 보여준 임전무퇴, 필사즉생의 투혼에 찬사를 보낸다”며, “공군은 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하여 완벽한 영공감시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함은 물론, 유사시 즉각적으로 서해 5도에 전투기를 출동시켜 정밀타격할 수 있도록 24시간 비상대기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참모총장은 공군 제8215관제부대의 작전실과 정비실을 순시하며 동계 재해재난대비 상태를 직접 점검하고, 관사지역을 둘러 군가족의 생활 여건까지 세심하게 확인하였다.

공사 59기 졸업식 주관

참모총장은 2월 25일, 공군사관학교에서 거행된 공사 59기 졸업식에 참석해 졸업생도들을 격려했다. 이날 참모총장은 “미래 공군을 선도해 나갈 주역으로서 지난 4년간 생도생활을 통해 신념화시켰던 조국 영공수호의 원대한 꿈과 이상을 각 분야 임무일선에서 펼쳐게 된 59기 여러분들의 졸업을 축하한다”고 격려하면서, “연합·합동 전장을 주도하는 항공우주군의 주역으로서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역동적인 변화와 체계적인 발전을 이끌어 내는 능동적인 창조자가 되어야 하겠으며,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몸소 실천하는 존경받는 리더가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정책발전자문위원 전체회의

참모총장은 2월 23일, 공군회관에서 정책발전자문위원 위촉식 및 전체회의를 주관했다. 이날 참모총장은 “공군이 올 한 해 동안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는 전투형 군대 육성, 국방개혁 추진, 긴요전력 확보 등으로 주요 정책추진에 있어서 전 장병도 혼연일체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완전성을 보장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히면서, “사회 각계 주요 직위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 이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권위 있는 견해와 전문가로서의 식견, 그리고 풍부한 경험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 적극 성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AF**



AIR FORCE MONTHLY

2011. 03. NEWS

적지에 고립된 미군 조종사를 구출하라



2월 25일, 한·미 공군은 전북 정읍 인근 산악지역을 적지로 가정, 비상탈출한 조종사를 구조하는 「한·미 연합 전투탐색구조 훈련」을 실시했다. 이 훈련에는 공군 6전대 소속 구조헬기인 HH-60 2대, 공중엄호 임무를 맡은 KF-16 4대, 가상적기역할을 맡은 F-4, F-5 전투기 4대와 조난 조종사를 저고도에서 엄호하는 美 7공군 소속 A-10C 6대로 '한·미 연합탐색구조 기동군'을 구성하여 지상과 공중에서 입체적이고 실전적인 구조훈련을 펼쳤다. 제6탈색구조비행전대 운영과

3훈비, 15만 시간 무사고 비행기록 달성

순수 국산훈련기 KT-1 항공기 운영으로 이룩해낸 뜻 깊은 결과

지난 2월 10일, 제3훈련비행단은 15만 시간 무사고 비행이라는 대기록을 수립하였다. 이번 15만 시간 무사고 비행기록 수립은 213비행교육대대 비행대장과 학생조종사가 조종한 항공기가 활주로에 안착함으로써 달성되었다. 특히 이번 기록은 순수 국산훈련기인 KT-1 항공기 운영으로 이룩해낸 결과라 그 의미를 더했으며, 국산항공기의 안정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제3훈련비행단 정훈공보실



자격증 28개! 내 작은 꿈의 시작입니다.

1비 백권위 하사, 5년의 군 생활 동안 주경야독으로 자격증 28개 취득

5년여 간의 군생활 동안 자격증을 28개(국가 공인 21개, 기타 7개)나 취득하며 임무수행에 있어 전문가가 된 것은 물론, 여러 방면에 걸친 공부로 인생의 자산을 넓혀가고 있는 군인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제1전투비행단 화생방지원대 방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백권위 하사. 백 하사는 군 입대 전 대학생이던 당시 전공했던 화학공학 특기를 살려 공군 부사관으로 입대해, 현재 비행단의 방호계획 작전을 수립하고 제독·정찰 작전 등을



총괄하고 있다.

백 하사의 공부 비결은 꾸준한 노력. 일과 중에는 임무에 충실하되 일과 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2시간 이상 규칙적으로 공부하는 습관이 지금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또한 문제들을 스스로 만들고 답을 풀어보는 능동적인 학습과정에서 공부의 참맛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공군본부 공보과

항공과학교 출신 첫 공군여부사관 13명 24일 임관

기술 분야의 여성전문가 필요성 충족시키고자 문호 개방

교육사령부에서는 2월 24일 '제40기 항공과학교등학교 졸업 및 임관식'을 가졌다. 이 날 졸업과 동시에 임관하는 138명의 신임 하사들은 '08년 입교 후 지난 3년 동안 전문계 고등학교 교과과정과 기술부사관으로서 필요한 기술교육 그리고 졸업을 앞두고 실시된 8주간의 강도 높은 기본군사훈련을 수료함으로써 명실공히 전문기술과 인성, 그리고 강인한 체력을 겸비한 공군 부사관으로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특히, 이번 제40기 졸업 및 임관식은 항공과학교 역사에서 매우 뜻 깊은 날이었다. 항공과학교에서 최초의 여군 부사관 13명이 배출되었기 때문이다. 금녀(禁女)의 공간이었던 항공과학교가 처음으로 여학생을 모집한 것은 '08년. 당시 15명 정원에 766명이 지원, 51.1: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여 화제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그 첫 결실이 이날 13명의 여군 부사관 탄생으로 맺어졌다. 교육사령부 정훈공보실



‘장애인의 아버지’ 명예공군 박창권 목사 타계

전신마비에도 불구하고, 평생 중증환자들을 위해 헌신



자신의 불편한 몸보다는 평생 중증환자들을 돌보는데 헌신해 온 박창권 목사가 지난 18일 향년 56세로 별세했다. 20일 제1전투비행단에 따르면 명예공군 소위인 박 목사가 지난 18일 오전 3시 자신이 12년간 원목 생활을 해 온 광주보훈병원에서 지병으로 별세했다.

KBS 드라마 ‘우리들의 축복의 기도를’(1981년 12월 방영)의 실제 주인공인 박 목사는 머리 아래로 마비인 중증장애인임에도 광주지역 병원을 돌며 어려움에 부딪친 중환자들을 보살펴와 ‘월처어를 탄 사랑’으로 기억되고 있다. 박 목사는 창공의 푸른 꿈을 안고 공군사관학교에 입교해 생도 4학년이던 1978년, 럭비 경기 중

목뼈가 부러졌고 전신마비 선고를 받았다.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박 목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민 사람은 조카의 친구 소개로 알게 된 아내 유옥희 씨였다. 간호사 출신인 유씨는 박 목사를 헌신적으로 보살피다 결혼이라는 사랑의 결실을 보았다. 아내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은 박 목사는 기적적으로 몸을 조금씩 움직여 가며 삶과 인생의 참됨을 고민하다 신학교에 입학했다. 사관생도 시절 동료를 따라 처음 교회를 간 것이 종교와의 첫 만남이었던 박 목사는 ‘자신이 목사가 될 줄 몰랐다’고 생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큰 시련에도 오독이 같이 일어난 박 목사의 불꽃 같은 삶은 드라마로 방영돼 많은 시청자의 가슴을 울렸으며, 이후 박 목사는 공군사관학교 27기 명예 공군 소위로 임관됐다. 유씨는 “드라마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지만, 남편과의 운명적인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았다”면서 “남편을 통해 큰 어려움에 처한 이들과 희망, 사랑을 나눌 수 있어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명예 공군 소위로 임관한 박 목사는 정식 대한민국 공군으로 인정돼 대전 국립묘지에 안장될 예정이다. 제1전투비행단 정훈공보실

공군, 최첨단 항공우주의학 연구에 도전!

국내 최초 공중·우주 공간 내 의학문제 연구할 「항공우주의학 연구센터」 개관

공군은 황무지에 가까운 국내 항공우주의학 분야의 전문연구를 선도하고 항공우주군으로 발돋움하는데 필요한 의학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항공우주의료원 내에 「항공우주의학연구센터」를 신설, 2월 10일 개관식을 실시했다. 항공우주의학연구센터는 그동안 항공우주의료원이 맡아왔던 우주의학연구를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며, 특히 동물실험을 통해 공중 및 우주 공간과 같은 3차원 공간에서 신체에 생기는 변화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를 과학적이고 실증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군본부 공보과



8비, 실전적 전투태세 훈련으로 敵 도발 완벽대비 전투대비태세 훈련 성공리에 종료

제8전투비행단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전시적응능력 향상과 전투준비태세 완비의 일환으로 11~1차 전투태세훈련(ORE)을 실시하였다.

훈련은 비상소집을 시작으로 비행대대의 전시출격, 적의 공습에 대비한 재난통제, 적기 출현에 대응한 대공방어, 화생방전에 대비한 제독, 대테러훈련 등 32가지의 각종 군사대비태세 훈련을 실시하였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10년 전투준비태세훈련 미흡사항을 중점 보완하였으며, 실전적 전투수행 능력 강화를 위해 비행단 지휘소 연습과 연계하여 실시하였다. 또한 훈련의 원활한 진행과 분야별 준비태세 점검을 위하여 훈련 책임관을 편성·운영하는 한편,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훈련성고를 제고하였다. 제8전투비행단 정훈공보실



의장대 선후배들이 당신을 응원합니다.

의장대 현역·예비역, 옛 의장대 전우 방문해 위로, 쾌유 기원

지난 16일 수요일, 공군 의장대 현역 장병들과 의장대 출신 예비역 단체인 '바로회' 회원들이 옛 전우를 만나 위로하고 그동안 모아온 성금을 전달했다.

그 주인공은 46년 전인 1965년부터 만 3년 동안 날랜 몸짓과 절도 있는 자세로 의장 시범을 보이며 공군의 위상을 드높인 의장대 용사 김정연 씨. 서울 여의도에 있었던 공군 제106기 지전대 의장대 소속이었던 김씨는 제대한 뒤인 1969년 척추염 및 류머티즘성 관절염으로 온몸이 굳어 간다는 진단을 받고 12년간 병상에서 홀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그러나 그는 라디오에서 이러한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돕기 위해 찾아온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에 이르게 되고 현재는 두 자녀를 둔 가운데 많은 이들의 '희망'으로 살아가고 있다. 특히 아내 이금안 씨는 결혼 이후 30년 동안 김 씨의 수족이 되어 지극한 정성으로 간호해왔다.

기사를 접한 '바로회' 회장 김홍식 씨는 수소문 끝에 옛 전우의 집을 알아내고 의장대 출신 예비역들은 물론 현역 공군 의장대원들과 함께 김 씨의 자택을 방문했다. 50여 년 전 공군 의장대 병사로 군복무를 시작해 40년 가까이 군에서 헌신하다가 공군 준사관으로 전역한 김홍식 씨는 "김 씨가 공군 의장대였다는 기사를 보고 공군 의장대에서 반평생을 몸담은 사람으로서 꼭 한 번 찾아가 부부의 행복을 빌고 싶었다"며 "비록 온전한 몸은 아니지만 용기를 잃지 않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며 공군 의장대 현역·예비역들이 언제나 성원하겠다"고 말하며 격려했다. 또한 공군 의장대 대표자격으로 방문한 김영관 의장대 주임원사는 올해 근속 30주년 격려금으로 받은 30만원을 비롯해 부대 장병들의 작은 정성을 모은 100여 만원을 전하며 선배 전우인 김씨의 쾌유와 행복을 기원했다. 공군본부 공보과



18비, IOC 실사코스 제설 대민지원

100년 만에 내린 기록적인 폭설, 신분에 상관없이 팔 걷어붙여



지난 13일부터 15일 화요일까지 제18전투비행단 장병들은 강릉지역 제설작업 대민지원에 나섰다. 이는 1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로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겪고 있는 강릉지역 주민을 돕고, 2018년 동계올림픽 IOC 조사평가단의 강릉현지실사를 지원하기 위해서였다. 총 3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대민지원

활동으로 18비는 강릉시 제설 긴요 지역에 교통원활과 시민불편해소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제18전투비행단 정훈공보실

'헌혈왕' 1비 김영일 중사

12년간 166회나 헌혈을 통해 이웃사랑 실천

국내 혈액 비축분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12년간 166회나 헌혈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해온 공군 중사가 있어 화제다. 주인공은 제1전투비행단 부품정비대 김영일 중사. 김 중사가 헌혈을 처음 시작하게 된 것은 고등학교 때 간 수술을 앞둔 같은 반 급우의 어머니를 돕기 위해서였다. 당시 그는 국내에서 헌혈 수급 사정이 좋지 못해 많은 환자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로 인해 혈액을 외국에서 수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고교 졸업 후 바로 군에 입대한

김 중사는 1999년부터 정기적으로 매달 2~3차례 헌혈의 집을 찾아 헌혈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헌혈한 양은 8만 700ml에 달한다. 전혈(혈액 성분 구분 없이 수혈하는 방법)을 할 경우 250여 회나 수혈할 수 있는 양이다. 이런 공을 인정받아 그는 헌혈 유공자에게 수여되는 대한적십자 헌혈 금장과 은장을 각각 2004년과 2002년 받기도 했



다. 하지만 그는 헌혈의 집에서 우연히 마주친 동료들 통해 자신의 선행이 알려지기 전까지 주변에 헌혈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김 중사는 17일 "헌혈을 하면 수혈자에게 도움을 주고 채혈자 자신도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면서 "헌혈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평생 헌혈하는 생활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1전투비행단 정훈공보실

벌레를 위해 세운 기념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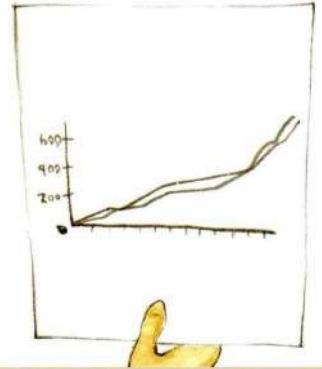


1900년대 초, 미국 앨라배마 주는 목화생산지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광활한 목화밭이 폐허가 된 듯 쑥대밭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멕시코에서 건너 온 '베빌'이라는 벌레가 목화 씨앗과 새싹을 먹어치워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벌레떼의 습격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농민들은 이를 퇴치해 보려고 애썼지만 헛수고였습니다.



결국 한 해 농사를 통째로 망친 농민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지 막막해 하며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농민들이 실의에 빠져 있던 그 때 '땅콩 전문가'로 불리던 조지 카버 박사가 다소 황당한 제안을 했습니다. 더 이상 가망성이 없는 목화 재배를 그만 두고 땅콩을 심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백여 년 동안 목화를 재배하며 생계를 유지해 왔던 그들은 오랜 전통을 포기하라는 카버 박사의 제안이 탐탁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힘든 현실을 딛고 다시 일어서겠다고 결심한 주민들은 그의 도움을 받아 땅콩 재배를 시작했고, 불과 몇 달 만에 목화를 재배할 때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거두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땅콩 농사의 대성공으로 인해 앨라배마 농민들은 더욱 열심히 일했고, 마침내 앨라배마 땅콩을 세계적인 명물로 만들어 낸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앨라배마에는 이를 기념하는 기념비가 있습니다. 두 손으로 벌레를 들고 있는 사람 형상의 기념비 앞에는 "우리에게 번영을 안겨다 준 벌레 베빌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베빌은 이들에게 처절한 시련과 난관을 안겨준 골칫덩어리였지만, 동시에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품고 노력하도록 만들어준 재기의 발판이었습니다. 또한 유일한 생계 수단을 잃게 된 절망적인 순간 속에서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찾아 열심히 매진했던 주민들의 지혜로운 삶의 자세 역시 전화위복의 표본으로서 마땅히 칭송받아야 할 것입니다



실패를 일으킨 원인은 그 당시에는 지독한 원망의 대상이지만, 이에 머무르지 않는다면 나를 한 단계 성장시키는 감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도약할 수 있다면 그 위기는 오히려 좋은 보약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파이팅 펄콘, JDAM으로 더욱 강해졌다!” 그런데 JDAM이 뭐지?

JDAM 전력화의 1등 공신인 항공소프트웨어지원소 요원 및 시험비행 조종사가 Kf-16과 JDAM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지난 2월 9일, 「Kf-16 JDAM 전력화 행사」가 제20전투비행단에서 실시되었다. 올해 1월 말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Kf-16 전 전투기에 최신 GPS 정밀유도폭탄인 JDAM(GBU-31, Joint Direct Attack Munition)을 장착하고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이다. F-15K와 더불어 공군의 주력 기종인 Kf-16 전투기에도 첨단 유도무기인 JDAM을 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현대전의 총아인 공군의 정밀타격능력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JDAM이란?

JDAM은 1996년 미국 보잉사에 의하여 처음 제조됐다. JDAM은 Joint Direct Attack Munition(통합정밀직격병기)의 약칭으로, 우리말로 ‘제이담’이라고 부른다. 재래식 비유도(非誘導) 자유낙하 폭탄을 정밀유도무기로 변환해 주는 장치로서 부품은 허니웰인터내셔널, 로크웰콜린스, 록히드마틴, 모듈러 디바이시스 등의 제조사들이 나누어 제작하고 있다.

관성항법장치(INS)와 위성항법장치(GPS)가 내장되어 있으며, 날개 부분에 방향조정용 날개가 붙어 있다. 기존의 450kg급 또는 900kg급 폭탄의 후미에 장착되어 재래식 공중투하 폭탄을 정밀유도하는데, 표적에서 최대 24km 떨어진 지점에 투하되어도 GPS 위성의 정보를 받아 표적까지 정확하게 유도한다.

1996년에 개발이 완성되어 같은 해 10월부터 B-1, B-2, B-52 등의 전

략폭격기와 F/A-18, F-16 등의 전투기에서 투하시험이 실시되었으며, 800개 이상의 EMD(기술·생산·개발) 및 양산형 JDAM을 제작했다. 작전용으로는 미 주리주 화이트맨(Whiteman) 공군기지의 B-2 비행대와 사우스다코다주 엘스워스(Ellsworth) 공군기지의 B-1 비행대에 B-2와 B-1 탑재형이 공급되었으며, 2001년 10월 7일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할 때 실전에 사용되었다.

JDAM의 위용

JDAM은 기존의 재래식 폭탄에 유도장치와 날개 커트를 장착해 스마트 무기로 변형시킨 정밀유도폭탄이며, GPS와 INS 유도방식을 통해 주·야간 전천후 정밀 폭격이 가능하다. 다른 정밀유도폭탄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기상 영향 받지 않으며 목표물까지 조준하지 않아도 스스로 목표물을 찾아간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JDAM은 북한 지역의 갯도 안 장사점포 등 다수의 주요 전략표적 목표를 동시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무기체계로 평가받고 있다.

JDAM 개발과정

공군은 2008년부터 3년여의 연구개발과 전력화 과정 끝에 Kf-16 전투기와 JDAM을 연동하는 소프트웨어(SW)를 자체 개발하였고, 3차에 걸친 실무장 시험 발사에 성공하여 올해 1월 말에는 JDAM 운용을 위한 조종사 대상 교육 및 훈련

까지 완료했다.

지난 2002년, 당시 JDAM 도입 사업 과정에서 KF-16 연동 SW 개발비에 대해 美 제작용업체에서는 401억원을 제시했지만, 항공 SW지원소는 항공기 임무컴퓨터 소스코드, 각종 기술자료 등의 분석을 통해 공군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2008년 1월부터 JDAM 연동 SW 개발 프로젝트에 착수, 3년여 동안 97억원의 비용으로 JDAM 연동 SW 연구개발과 세 번의 실무장 사격을 포함한 성능평가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 결과 KF-16 항공기에 JDAM 운용능력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공군의 작전 운영 능력을 한 단계 발전시켰다. 美제조사 요구 금액 대비 304억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보는 쾌거를 이뤄낸 것이다.

1997년 창설된 군내 유일의 항공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전담 부서인 SW지원소는 항공기, 시뮬레이터 및 전자전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하거나 국내 상황에 맞게 업그레이드 하는 등 지금까지 1,765억원의 국방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SW지원소가 「2010년 공군을 빛낸 인물」 전투력 발전 부문에서 우수 단체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공군 SW지원소장 정덕용 대령은 "이번 KF-16 JDAM 연동 SW 개발 성공에 따라 향후 무기체계 도입 및 국내 연구개발 사업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되었다"며 "그동안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지원능력을 더욱 확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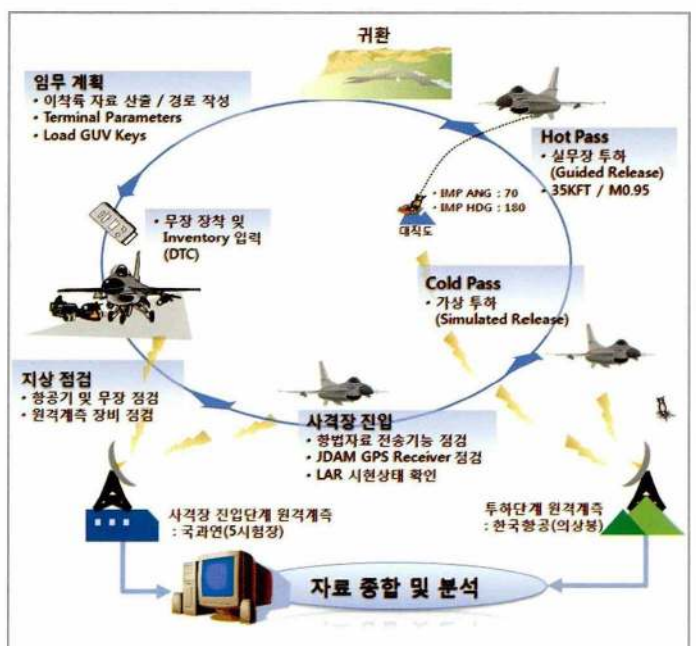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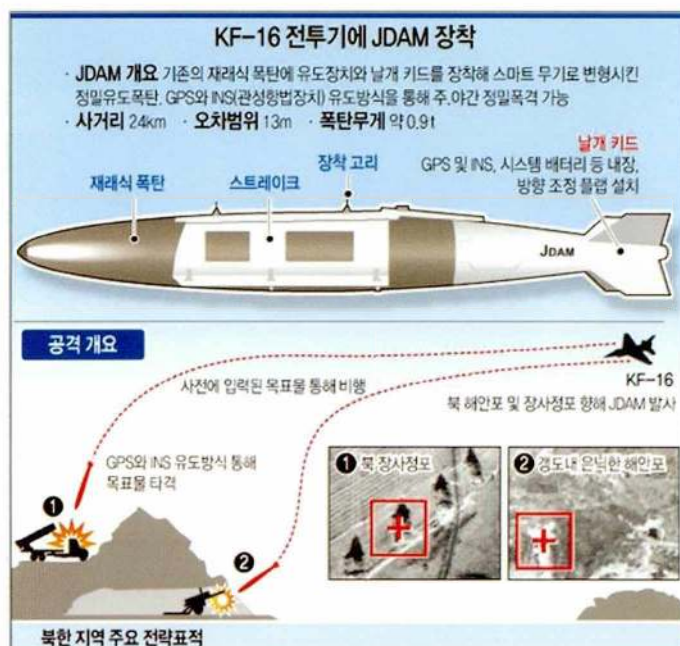
연동 장착비행시험과 실무장 사격을 실시한 29전술개발비행전대 김세훈 소령은 "세 번의 실무장 사격을 통해 적의 핵심표적을 정밀 타격하여 초토화시킬 수 있는 JDAM의 가공할 파괴력과 정확도를 직접 확인했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자체 개발한 JDAM 연동 소프트웨어는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전력화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음을 재차 확인시켰다. **AF**

용/ 어/ 해/ 설/

관성항법장치(Inertial Navigation System) : 잠수함, 항공기, 미사일 등에 장착하여 자기의 위치를 감지하여 목적지까지 유도하기 위한 장치이다. 동작원리는 자이로스코프에서 가속도를 구해 적분하여 속도를 구하고, 속도를 적분하여 이동한 거리를 구하는 것이다. 처음 있던 위치를 입력하면 이동해도 자기의 위치와 속도를 항상 계산해 파악할 수 있다. 악천후나 전파 방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장점을 가지지만 긴 거리를 이동하면 오차가 누적되어 커지므로 GPS에 의한 보정을 더해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위성항법장치(Global Positioning System) : 어느 곳에 있는지 인공위성을 이용해 위치를 정확히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 본래 군사용으로 개발됐지만 활용범위가 넓어지면서 지도제작, 정밀측량, 개인 위치정보 파악 등 상업적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공군 KF-16 전투기가 최신 GPS 정밀유도폭탄인 JDAM(GBU-31, Joint Direct Attack Munition)을 시험발사하고 있다. 공군 주력기인 KF-16은 이번 전력화로 한층 날카롭고 매서워진 타격능력을 지니게 되었다.



비행시험 수행절차

대한민국공군
대표 블로그

공감 SEASON II

WWW.

AFPLAY.KR

공군공감은 공군의 작전훈련과 병영생활모습, 소식을 담은 콘텐츠로 이루어진 대한민국 공군 대표 블로그입니다. 네티즌 눈높이에 맞춰 친숙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이루어져있으며 트위터(@afplay), 앱스토어(공군공감)을 통해서도 공군 공감을 접할 수 있습니다.



culture

36.5

랭고

* Hollywood English

나가사키 항구에 찾아온

봄날의 사랑

오페라 나비부인

* 인생은 아름다워

시대정신을 담아냈던 화가

자크 루이 다비드

* Behind the Canvas

3월의 문화행사

* Preview

RANGO

2011년 다보스 포럼 핵심 의제는 FEW

향후 100년 동안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FEW가 될 거라는 분석이 나왔지요. 진원지는 2011년 다보스 포럼(Davos Forum). 포럼의 핵심 의제이기도 한 FEW에서 우리는 단박에 '결핍' 또는 '부족함'을 읽어낼 수 있겠군요. 그도 그럴 것이 FEW는 Food(식량), 에너지(Energy), 물(Water)의 머리글자 조합이니까요. 2011년 다보스 포럼에서 식량인 동시에 에너지원이기도 한 물을 중점적으로 다룬 이유는, 이 또한 그도 그럴 것이 2030년에 이르면 무려 세계 인구의 40%가 물 부족을 겪게 된다는 충격적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지요. 인류의 건강, 생태계 그리고 경제성장의 운명을 결정지을 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미래적 직관력 발휘한 영화 <랭고>

이번 칼럼에서 소개하는 영화 <랭고 Rango>의 핵심 키워드도 Water입니다. 매년 열리는 다보스 포럼의 의제가 수년 앞서 정해지는 것도 아닐 텐데, 제작 기간이 최대 5년이나 걸리는 3D 애니메이션의 제작사가 Water를 소재로 한 영화를 때마침 2011년에 개봉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들의 미래적 직관에 탄복을 금하지 않을 수 없지요. <랭고>는 세계적인 영화제작자 겸 감독인 조지 루카스의 ILM(Industrial Light & Magic) 스튜디오가 만든 최초의 장편 애니메이션입니다. <랭고>의 감독은 고어 버빈스킨인데요, <캐리비안의 해적>을 1편부터 3편까지 만든 거장이지요. 올랄라! 그렇다면 21세기형(?) 엽기발랄 해적 아이콘인 캡틴 잭 스페로우도 <랭고>에 혹시 동참한다는 뜻? 맞습니다. 조니 뎀이 주인공인 카멜레온의 목소리 연기자로 참여했습니다. <캐리비안의 해적> 3부작으로 글로벌 흥행에서 무려 27억 달러를 벌어들인 블록버스터 감독과 세계 최고의 스타인 조니 뎀의 조합만으로도 이 영화의 매력은 얼마나 판타스틱할지, 상상이 되죠?

대략난감 정체불량 카멜레온 랭고(Rango)

카멜레온 랭고는 유리용기(terrarium) 안에 갇혀 사는 애완동물입니다. 랭고는 연극배우와 연출가가 꿈이어서 틈만 나면 유리용기 속의 각종 장식품들과 광대 놀이를 합니다. 그런데 아뵘싸, 유리용기가 박살납니다. 때마침 랭고는 주인의 차에 실려 휴가를 가던 중이었는데, 고속도로에 뛰어든 동물을 피하는 상황에서 랭고가 탄 차가 격렬하게 뒤뚱거리고, 그 바람에 랭고가 튕겨나갑니다. 차에 치였지만 간신히 목숨은 건진 동물 로드킬(Roadkill)은 띄약벌 아래에서 온몸이 타들어 가는 랭고에게 '황야빌(Dirt)' 타운에 가면 물을 얻을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어딘가 범상치 않은, <스타워즈>의 요다를 오마주(homage, 경배)한 것 같은 이 동물은 "우리 모두 떠나야 할 여정이 있지(We all have our journeys to make)."라며 부추기고, 결국 랭고는 목숨을 건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일털결에 영웅이 된 '겁나 악골' 떠돌이의 무용담

랭고가 도착한 곳은 모하비 사막.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즐겨 등장하는 광대들처럼 <랭고>에도 감초 역할을 하는 악단이 곳곳에 등장해 내레이터 역할을 하는데요, 4인조로 구성된 올빼미 밴드는, 랭고에게 닥칠 앞날이 얼마나 험난할지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곳 모하비 사막에서 동물들은 살아남는데 수백만 년 걸렸어(Here in the Mojave Desert animals have had millions of years to adapt to the harsh environment)." 떠돌이(Stranger) 랭고가 도착한 타운은 서부영화 속 황야를 연상케 하는 곳. 총잡이 무법자들도 있고, 그들에게 뜯기고 뺏기는 선량한 시민들도 있고, 무법자들을 조종하는 정치인도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물을 찾아 '황야빌'에 간 랭고는 그만 맥이 쪽 빠져버립니다. '황야빌'에선 화페로 통용될 만큼 물이 귀한데다가, 언제부턴가 물 배급마저 끊겨버렸고, 결국 마을사람들은 하나 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기 시작했거든요.

보안관 랭고의 미션 - '물장난'의 배후를 밝혀라!

이야기는 마을사람들의 천적인 매를 '우발적으로' 처치한 랭고 앞에 콩스(Beans)라는 이름의 어여쁜 도마뱀이 나타나면서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콩스는 매를 처치한 공로로 보안관이 된 랭고에게 물 공급이 끊기게끔 농간을 부리는 배후로 시장이 의심스럽다고 귀찮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정보는 정확한 것일까요? 그 무렵 강도가 출몰한 이후 물 은행의 '물 잔고'가 몽땅 사라집니다. 랭고는 수색대를 규합해 강도떼를 추격하고, 그 과정에서 최근 은행장이 살해된 사실과 물 은행이 강도들의 출몰 이전에 이미 털렸다는 걸 알아냅니다. 수색대가 물을 되찾아올 거라 철석같이 믿은 마을사람들의 실망은 극에 달하고, 랭고는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시장에게 찾아갑니다. 마을이 마치 거북의 등딱처럼 찌적 갈라질 만큼 상황이 악화됐건만 천하태평인 '거북' 시장은 랭고가 의심의 눈총을 쏟아 이렇게 대꾸합니다. "내가 신의 능력이라도 지녔단 말인가? 대체 내가 무슨 수로 물을 조종한단 말인가(You attribute divine power to me. How on earth could I possibly control the water?)"

No man can walk out on his 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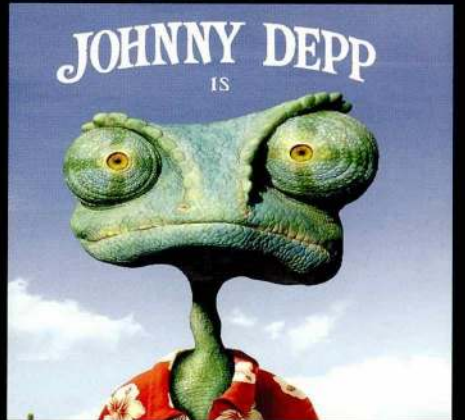
독자 여러분! 이 칼럼을 읽을 때쯤이면 극장에서 <랭고>를 만날 수 있겠군요. <랭고>에서 제가 꼽는 명대사는 'No man can walk out on his story'입니다. 'walk out on'은 '버리다, 그만두다(abandon)'의 뜻이지요. 그러므로 이 영어문장은 '시작한 일은 꼭 끝마치는 게 대장부'라는 뜻의 은유입니다. 자, 과연 그동안 세기의 총잡이라며 마을사람들을 속여먹은 랭고는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뽀아 든 칼로 무라도 벨 수' 있을지? 누가 '물장난'의 진범인지 밝혀내고 마을사람들의 목숨을 지켜줄 수 있을지? '무명에서 유명으로(from zero to hero)'라는 표현처럼 한낱 도마뱀인 그가 영웅으로 거듭나기까지 과연 어떤 번신을 꾀하게 될지? 기관총을 난사하는, 무시무시한 포스를 뽐으며 등장하는 방울뱀 잭(Rattlesnake Jack)의 정체는 또 무엇일지? 이 모든 궁금증을 영화관에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번역한 영화이며, '강추(Two thumbs up!)'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저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의 우화처럼 입을 꼭 닫은 채(^^;) 이번 글을 마치립니다. **A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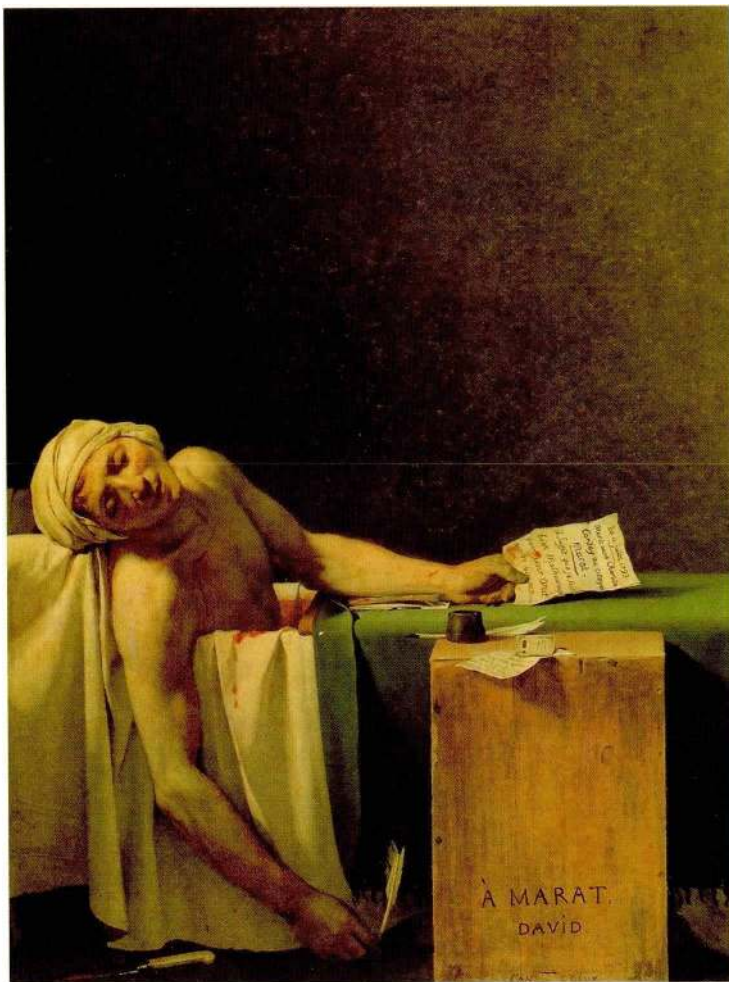


이미도(작가, 외화번역가)

<http://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74309>

<http://www.imdb.com/title/tt1001526/>





〈마라의 죽음〉
1793년, 캔버스에 유채, 165*128, 벨기에 왕립 미술관 소장

시대정신을 담아냈던 화가

자크 루이 다비드

예술로 대중들을 교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다비드는 혁명의 물결이 프랑스를 휩쓸자 왕정 시대의 궁정 화가로서 영광을 버리고 1792년 혁명에 동참한다. 프랑스 혁명 정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다비드는 자신의 재능을 혁명의 선전도구로 이용했는데 대표적인 작품이 〈마라의 죽음〉이다. 이 작품은 1793년 여름 혁명 중에 일어난 정치인 마라의 죽음을 사실적으로 기록하면서도 동시에 선전 효과를 극대화시켰다.

저널리스트이자 급진주의자 마라는 프랑스 혁명 후에 세워진 정치기구인 국민공회의 일원이자 자코뱅당을 이끄는 인물로 프랑스 공화국의 실질적인 지도자였다. 마라의 급진주의 성향은 대중들에게 열렬한 지지를 받았지만 반대세력인 프랑스 왕권주의자들에게는 제거해야만 하는 정적이었다. 1793년 귀족 출신의 열렬한 공화당원이었던 여인 살롯트 코르도네가 거짓 편지를 들고 그의 집으로

찾아가 피부병으로 욕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마라의 가슴에 칼을 꽂았다.

다비드는 이 작품의 구성을 두 부분으로 나누었다. 화면 위는 희미한 조명으로 극적인 효과를 연출했으며 화면 아래 욕조에 마라가 왼손에는 편지를, 오른손에는 펜을 들고 죽어 있다. 마라의 가슴은 칼에 찔린 상처가 그대로 드러나 있고 욕조 옆에 두었던 수건에는 그가 흘린 피로 붉게 물들어져 있다. 욕조 밖에는 그를 찌를 때 사용한 칼이 피에 묻은 채 놓여 있다. 마라가 왼손에 쥐고 있는 편지는 살롯트 코르도네가 쓴 자신의 소개장이다. 그녀는 마라에게 자비를 구하려고 했고, 마라가 그녀에게 기대했던 것은 지롱드 당에 대한 정보였다.

탁자에는 잉크병과 깃펜, 편지와 돈이 놓여 있다. 탁자 아래 '마라에게, 다비드가' 이라는 화가의 사인이 있는데 그것은 단순한 화가의 사인이자기보다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다는 의미가 더 크다. 다비드는 이 작품을 완성하고 '나는



〈알프스를 넘는 보나파르트〉

1800~1801년, 캔버스에 유채, 272*232, 말메즈 사도 국립미술관 소장



〈사포와 파웅〉

1809년, 캔버스에 유채, 226*262, 러시아 에르미타슈 미술관 소장

인민의 목소리를 들었노라. 그리고 거기에 따랐노라.’ 라고 했다. 다비드는 마라가 죽은 후 대중들에게 전시되었던 시체를 보았지만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살해당했던 당시 상황을 그대로 표현했다.

다비드는 프랑스 혁명 후 나폴레옹의 공식 화가가 되면서 나폴레옹의 이미지를 극대화시킨 작품을 제작한다. 나폴레옹을 이상화된 통치자의 모습을 표현한 작품이 〈알프스를 넘는 보나파르트〉다. 이 작품은 나폴레옹이 스페인 왕 카를로스 4세의 초상화를 보고 의뢰했다. 말 위에 앉아 나폴레옹은 팔을 들고 돌진을 명령하고 있다. 바람에 휘날리는 나폴레옹의 망토와 말의 갈기 그리고 꼬리는 알프스의 사나운 날씨를 나타낸다. 나폴레옹 발밑에는 알프스를 넘는 한니발 대제와 샤를마뉴 대제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1800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말 대신 산길에 강한 노새를 타고 알프스를 넘었다고 한다. 다비드는 이 작품을 제작하면서 나폴레옹에게 직접 모델을 해달라고 청했으나 나폴레옹은 거절했다. “초상화와 내가 닮고 안 닮고는 중요하지 않다. 천재의 창의력을 발휘해서 그리면 된다.”고 했다. 또 그는 전쟁터를 배경으로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앞발을 든 말 위에 평온한 모습으로 그려달라고 주문했다. 다비드는 나폴레옹이 타고 있는 말을 표현하기 위해 러시아 황제 표트르 대제의 기마상에서 말을 보고 묘사했으며 말에 앉아 있는 나폴레옹을 그리기 위해 제자를 말에 태워 모델로 삼았다.

다비드는 나폴레옹의 궁정화가로 정치적 목적을 담은 그림만 그렸던 것은 아니다. 다비드는 다양한 주제를 통해 자신의 예술 세계를 표현했는데 그의 작품 중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이 〈사포와 파웅〉이다.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여류 시인 사포는 어느 날 신전에서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에게 바칠 사랑의 시를 짓고 있었다. 신전에서 파웅은 사포를 보고 첫눈에 반한다. 파웅은 여신에게 추하게 생긴 자신을 아름다운 청년으로 보이는 마법을 청한다. 며칠 후 신전을 찾은 사포를 본 파웅은 여신에게 받은 마법의 향을 신전 구석구석 몰래 피워두었다. 마법의 향에 취한 사포는 파웅과 사랑에 빠지고 만다. 하지만 사랑을 고백하고 있던 중 마법의 향은 서서히 사라지고 파웅의 본래의 모습이 드러난다. 파웅을 본 사포는 사랑을 노래하며 자살한다.

파웅은 사포의 뺨을 다정하게 어루만지고 있다. 사포의 시적 영감을 주는 종이는 무릎 위에 놓여 있고 그녀의 악기 루트는 큐피드가 연주하고 있다. 파웅의 뒤로는 향이 피어오르고 있다. 피어오르는 향은 사랑의 마법이 유효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열린 창문으로 두 그루의 나무가 보이고 창가에는 두 마리의 비둘기가 사랑을 나누고 있다. 비둘기와 나무는 파웅이 사랑을 고백하는 순간임을 암시한다.

이 작품은 러시아의 왕자였던 니콜라이 유스토프의 의뢰에 의해 제작되었다. 그는 왕자에게 보낸 편지에 ‘매우 감상적인 여류 시인이었던 사포를 주제로 하고 있으며, 큐피드가 사랑의 불을 지핀 파웅을 묘사하고 있다.’ 라고 밝혔다. 다비드는 연인들의 호화로운 침실을 묘사하기 위해 부를 상징하는 물건들을 화면에 배치했다.

자크 루이 다비드(1748~1825)는 신고전주의를 이끌었던 선구자로서 혁명의 격동기에서도 자신의 예술 세계를 이끌었다. 하지만 다비드는 나폴레옹의 몰락으로 브뤼셀로 망명한다. 망명지에서 조국 프랑스로부터 귀국 제의를 받지만 다비드는 거절하고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AF**

오페라 무대 위의 사람들 ③

나가사키 항구에 찾아온 봄날의 사랑

오페라 나비부인



배가 드나드는 항구의 저녁은 아름답다. 수평선 너머로 기울어지는 태양과 그 사이로 밀려오는 저녁 풍경... 항구에 저녁이 찾아오면 고요한 그리움도 퍼져간다. 배를 타고 떠난 사람과 바다의 품에서 삶을 꾸려가는 사람들, 그리고 가슴 졸이며 그들을 기다리는 남겨진 사람들... 저 멀리 뱃고동 소리와 머무는 항구의 풍경은 그리움의 장소가 된다.

오페라 나비부인은 일본의 아름다운 나가사키항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벚꽃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봄날, 항구가 내려다보이는 아름다운 별장에서 '초초상'과 '핑커톤'이 결혼식을 올린다. 순백의 하얀 옷을 입은 초초상. 나비의 가벼운 날갯짓처럼 선이 고와서 '나비부인'이라 부르는 초초상은 올해로 꼭 15살이 되는 일본 여인이었다. 한때는 부유했지만 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내고 집이 어려워진 초초상은 결혼을 선택한다. 하지만 남편될 사람은 나가사키 항구에 잠시 머무는 미국 해군 '핑커톤'이었다.

초초상을 처음 본 핑커톤은 선이 가는 이 여인을 보고 첫눈에 반한다. 가냘픈 몸매를 지닌 그녀는 신비한 매력을 지닌 동양 여인이었다. 초초상도 처음 만난 능름한 미국 해군이 싫지 않았다. 핑커톤과의 결혼을 앞둔 초초상은 이렇게 노래한다. "나는 일본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 아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 사랑의 복된 부름을 받고 나는 왔노라." 핑커톤과 초초상은 그 순간만큼은 가장 행복한 연인이었다.

나가사키 항구가 내려다보이는 아름다운 봄날. 이들의 결혼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하지만 이 결혼식에는 축복의 말 대신, 저주의 말이 가득했다. 미 해군 핑커톤과 일본 여인 초초상의 결혼은 그 시작부터 불안하기만 했다. 핑커톤을 위해 종교와 신념을 버려야 했던 초초상. 친척들은 그녀에게 저주를 퍼부었고 어느 누구도 그녀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일본 여인과 미 해군의 사랑, 그것은 어쩌면 그 시작부터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이라고 생각하는 초초상과 신비한 동양여인에게 한눈에 반한 핑커톤의 사랑, 그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핑커톤에 대한 초초상의 마음은 어쩌면 사랑이라기보다는 절대적인 믿음에 가까웠을 것이다. 그녀의 사랑은 자신을 행복하게 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었으며, 그녀는 어쩌면 사랑받는 여자라는 사실에 더욱 행복해 했을 것이다. 하지만 핑커톤의 경우에는 달랐다. 그 역시도

나비부인을 사랑했지만, 핑커톤의 사랑은 영원한 서약을 맹세하는 것은 아니었다. 나비부인과 살 집을 알아보는 핑커톤은 “나는 이 집을 999년 동안 쓰기 위해 샀소.”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말을 바꾼다. “하지만 언제나 해약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요.” 나비부인과 살아갈 집에 대한 의미는 곧 나비부인에 대한 의미이기도 했다.

이제 시간이 흘러,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무대에는 창가에 다소곳하게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일본 여인이 그려진다. 여전히 단아한 자세로 창밖을 바라보는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한 사람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언제 돌아오는 질문에, “나비부인, 장미를 들고 오지. 따뜻한 좋은 계절에 올새가 집을 질 때 돌아오겠소.”라고 말하며 방문을 잠그고 나간 핑커톤. 그는 이 가녀린 여인을 남겨두고 미국으로 떠나버렸다. 그의 아이를 홀로 낳아 키운 나비부인은 뱃고동 소리가 아스라이 들려오는 나가사키 항구를 바라보며 오늘도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삶을 꾸리기도 어려웠던 나비부인은 이전의 아름다운 시간을 추억하며 “어떤 개인 날”을 부른다. 그러던 어느 날, 나비부인의 집에 나가사키 주재 미국 영사 ‘샤플레스’가 찾아온다. 미국에서 보내온 편지 한 장을 들고 온 샤플레스... 그는 핑커톤이 집에 돌아올 거라는 소식을 전해준다. 하지만 핑커톤의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즐거웠던 3년이 벌써 지나가고 이제 나비부인은 날 기억 못할 거요. 그녀가 아직도 날 기다린다면, 그대의 수단으로 타일러서 마음속으로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오.”라고 적혀있었다. 핑커톤은 이미 고국에서 미국의 여인을 신부로 맞이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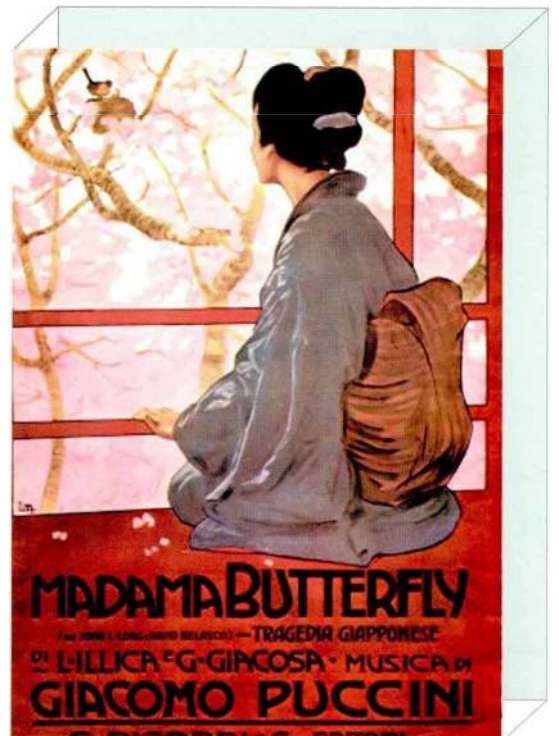
결국 핑커톤이 결혼했다는 사실은 전하지 못한 샤플레스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와야 했다. 하지만 나비부인의 마음속에는 3년 전 결혼할 때 느꼈던 설렘으로 가득하다. 핑커톤을 기다리는 동안, 나비부인은 정원에 있는 꽃을 모으기 시작한다. 비올렛, 자스민, 꽃이 피는 나무, ... “꽃의 이중창”을 부르며 정원에 있는 모든 꽃으로 방을 장식하는 나비부인은 이전의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결혼식 날 입었던 옷을 꺼내 입었다. 그리고 창에 구멍을 뚫고는 구멍 사이에 비쳐지는 나가사키 항구를 바라보고 있다.

잠시 나비부인이 잠든 사이... 3년 전 이곳을 떠났던 핑커톤이 언덕 위의

집에 올라온다. 하지만 그의 옆에는 미국에서 함께 온 ‘케이트’가 있었다. 나비부인이 잠든 사이, 핑커톤은 유모에게서 자신의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된다. 그리고 그제야 나비부인의 한결 같은 마음을 알게 된다. 미국에서 함께 온 핑커톤의 부인 케이트는 나비부인에게 말한다. “아이를 내 아이같이 돌보겠어요.” 하지만 나비부인은 대답 대신 이렇게 말한다. “저 푸른 하늘 아래 당신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영원히 행복하세요. 행복하길 바랍니다.”

나비부인은 이 여인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자신이 오래도록 그리고 있었던 꿈을 바로 그녀가 이루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의지했던 아이마저 빼앗겨 버린 나비부인.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난 그이가 데리러 올 때, 아기를 주겠어요. 반시간 후에 올라오게 하세요.” 그리고는 옆에서 놀고 있는 아이의 눈을 흰 천으로 가려준다.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단도, 여기에는 “명예로운 삶을 살지 못할 때에는 명예로운 죽음을 택하라.”고 적혀있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한 남자에게 바친 여인, 그녀에게 남겨진 최선의 선택은 마지막까지도 단 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명예로운 죽음이었다. 나가사키 항구가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의 집... 이곳에는 아름다운 봄날을 꿈꾸는 가녀린 여인의 한결 같은 사랑만이 남아 있었다. **AF**



최강 캐스팅으로 화려하게 돌아온 뮤지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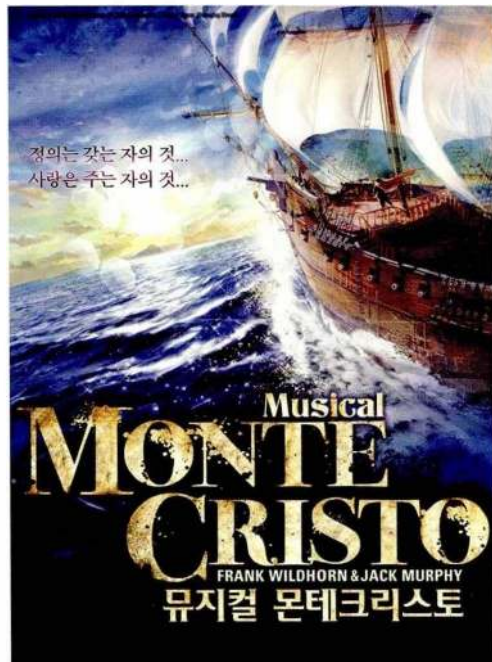
〈몬테크리스토〉

봄, 다시 돌아온 뮤지컬 〈몬테크리스토〉와 함께할 주인공은 한국 초연 당시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류정환과 엄기준, 신성록, 차지연과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에서 여주인공 크리스틴 역을 맡으며 히로인으로 떠오른 뮤지컬배우 최현주가 합류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인간 삶의 희로애락 모두를 한 작품 속에 풀어 시대를 초월한 대작이라고 평가 받는 〈몬테크리스토〉는 프랑스 마르세유 출신의 젊은 선원 에드몬드 단테스가 그의 약혼녀를 탐낸 친구와 그의 성공을 시기하는 주변 사람들의 흉계로 14년이나 감옥에서 억울하게 수감되어 탈옥 후 신분을 숨긴 채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가명으로 돌아와 그의 인생을 망쳐버린 이들을 사교술과 막대한 재산을 이용해 하나하나 파멸시킨다는 내용이다.

한 여자를 사랑하는 평범한 남자에서 신분을 숨기고 복수를 펼치는 주인공 몬테크리스토 백작역은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공연으로 다시 한번 국내 최고의 뮤지컬 배우임을 입증한 류정환과 뮤지컬 〈삼총사〉, KBS 2TV 새 월화드라마 〈드림하이〉에 출연 중인 엄기준, 그리고 지난 12월 SBS 〈이웃집 웬수〉로 연속극 부문 조연상을 수상한 배우 신성록이 맡았다.

- 기간 : 4월 24일까지
- 장소 : 서울 충무아트홀
- 가격 : VIP 12만, R 10만, S 8만, A 5만
- 홈페이지 : www.musicalmonte.com



마음을 세탁하는 연극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사건〉

친구, 연인, 가족 누구와 함께라도
공감 100%, 재미와 감동을 한번에~!

2010년 전국 25만 관객 돌파!!
2010년 국어 교과서 수록!!

오아시스세탁소 습격사건

화~금 8:00pm | 토, 일(공휴일) 3:00, 6:00pm (월 휴)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할인 받고 우물 파고 1석 2조! (샘물데이)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50%할인 주부대상 특별공연 (퀵데이)

오아시스극장 (해화역 2번 출구 도보 5분)

예매 사이트: 티켓/옥션티켓/인터파크/티켓링크 기획제작 극단 모시는사람들
협찬: 사파리 공연문의 02-3673-0888 oasis-setakso.cyworld.com

때 묻은 세상 한 귀퉁이, 때 빼고 배꼽 빼는 오아시스 세탁소가 개업한 지 5년이 됐다. 2011년 현재 29만 관객을 돌파하며 계속 공연 중이다. 화려한 뮤지컬 흥수 속에 장수한 연극이기에 더욱 눈길이 가는 작품이다.

세탁기 조형의 독특한 간판과 매표소, 로비를 지나 공연장 안으로 들어서면 무대세트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천장 곳곳에 널린 수백 벌의 옷가지들과 스팀다리미, 재봉틀 등 세심하게 신경 쓴 소품과 무대를 보고 있노라면 영락없이 정겨운 옛 동네의 세탁소인 것 같다. 관객은 어느새 그곳에 모인 주인이 되어 버린다. 게다가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문 무대디자인, 실력파 배우들의 실감연기 또한 무대 가까에서 그들의 땀방울을 통해 느낄 수 있다. 연극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사건〉의 인기비결이다.

공연의 백미인 마지막 장면에서 수많은 비눗방울에 휩싸여 하얗게 세탁된 사람들을 보고 있노라면 그 만화적 상상력의 구현에 함께 박수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어느새 그들과 함께 세탁된 느낌을 받게 된다. 아름다운 마지막 장면에, 잠시 현실을 잊고 몽환적인 기분에 사로잡힌 관객들은 때 묻은 세상 한 귀퉁이에 자리 잡은 이 세탁소가 범상치 않음을 느끼게 되고, 잠시나마 삶의 오아시스를 제공하고자 했던 이 공간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 기간 : 오픈런
- 장소 : 서울 대학로 오아시스 극장(해화역 2번 출구, 도보 5분)
- 가격 : 전석 2만원
- 홈페이지 : oasis-setakso.cyworld.com

Opinion

동아일보 유성운 기자의
KF-16 탑승 체험기

* KF-16과 날아올라!

공군, 내 마음의 풍경 몇 장

* 창공 글터

청력에 대한 관심,
귀를 보호합시다!

* Health Diary

세븐 센스

* 책마을

동아일보 유성운 기자의 KF-16 탑승 체험기

탑건 스쿨 29전대를 찾아가다



‘탑건(Top Gun) 스킴’

공군에서는 제29전술개발훈련비행전대를 이렇게 부른다. 공군이 자랑하는 최정예 파일럿들을 양성하기 때문이다. 각종 테스트를 거쳐 파일럿이 된 공군 장교 중 우수한 파일럿들을 또 선발해 이곳에서 최종 교육이 이뤄진다. 1월 18일 본보는 국내 언론 최초로 이들의 훈련과정에 참여했다.

18일 오전 10시 ACMI(공중전투훈련장) 회의실. 비행은 오후 12시 40분에 시작되지만 2시간 앞서 모여 이날의 비행훈련에 대한 사전브리핑을 가졌다. 참여한 인원은 총 4명, 공격조 전투기에 탈 조종사 김봉성 소령과 부조종사인 기자, 적기 역할의 수비조 전투기에 탈 지만식 소령과 김영우 대위다. 김 소령의 손은 전투기 모형 2대를 잡고 어떤 동선에 따라 움직이는지 설명하느라 어지럽게 움직였다. 움직임이 현란해질수록 기자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다.

“봉투, 챙겨가세요.”

김 대위는 씩 웃으며 연한 카키색의 비행장구로 갈아입는 기자에게 검은 봉투를 내밀었다. “비행 시 현 기증 및 복통을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는 김 대위는 “초급 장교들도 처음에는 다 토하니까 부끄럽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조종복 명찰에는 ‘유성운(A)’ 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A)는 뭐죠?” “혈액형입니다. 추락하게 될 경우 급하게 수혈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이것을 넣는 거죠” (AB)를 달고 있는 김 소령이 설명했다. 순간 머릿속에서 지난 해 썼던 기사(‘30년 넘는 노후 전투기 41%…조종사 매년 3 명꼴 추락사’〈본보 2010년 11월 19일 A10면〉)가 떠올랐다. 등에서 식은땀이 나는 듯했다.

낮 12시, 소형버스로 전투기가 대기하고 있는 곳으로 이동했다. 조종석이 높은 탓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 시트에 앉아보니 좌석은 일반 비행기의 이코노미석보다 훨씬 좁았다. 몸을 우겨넣어야 겨우 들어가는 정도였다.

“이륙합니다.” 헬멧 속 헤드폰으로 앞 조종석에 앉은 김 소령의 굵고 짧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면 눈 높이에 붙은 스크린에서는 각종 수치들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빠른 속도로 29전대의 활주로를 질주하기 시작한 KF-16은 너무나 가볍게 ‘둥실~’ 하고 떠올랐다. 수차례 비행기를 타봤으나 이렇게 가볍게 오르는 느낌은 처음이었다. 마치 양탄자를 타고 떠오르면 이렇지 않을까 싶었다. 이날 훈련의 시작은 적의 소형화기를 회피하기 위한 전술 출항이었다. 일반적인 출항보다 고도를 급상승시켜 하늘에 오르는 것이다. 갑작스럽게 고도가 10,000ft까지 급상승했다. 귀에 압력이 세지며 통증이 느껴졌다. 두통한 장갑으로 코를 막고 발살바 기법(손가락으로 코를 막고 숨을 쉬면서 체내 압력을 외부와 맞춰주는 방법)을 시도하니 조금 나아졌다.

태안 앞 바다의 훈련 지역에 도착하자 김 소령은 G적응을 한다며 전투기를 이리저리 움직였다. “5G입니다.” 엇, 뭔가 내 몸을 양쪽에서 잡고 빨래처럼 쥐어짜는 것 같았다. 현기증도 심해졌다. 복통이 시작됐고 몸 곳곳에서 비상경보가 울려왔다. “괜찮습니까.” 김 소령의 목소리가 헬멧을 통해 전해졌다. G는 전투기 내에 가해지는 압력을 의미한다. 5G라면 평상시 지면 위에서 받는 중력의 압력보다 5배 높은 수준이다. 문득 전투기를 타기 위해 사전에 받은 항공생리훈련이 떠올랐다. 당시 1분 30초가량의 G내성 훈련에서 기절 직전까지 갔었다. 1950년대 우주선 실험에 쓰였다는 개와 원숭이들도 이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견딘 것일까?

“그럼 시작합니다.”

이윽고 김 소령은 “11시 방향에 적기가 나타났다.”고 말해줬다. 11시 방향을 보려고 하는데 머리가 지끈거렸다. ‘아, 목을 1도씩 조금씩 움직이라고 했지.’ 천천히 돌려봤는데 잘 보이지는 않았다. 이후부터 김 소





령의 목소리는 내 머릿속에서 메아리쳤고 내용은 거의 인식되지 않았다. 갑자기 전투기가 방향을 트는 순간 내 목은 거의 90도 각도로 왼쪽으로 꺾였다. 목을 일으켜보려 했는데 도저히 펴지지 않았다. 일시적인 산소 부족 현상 탓에 시야는 서서히 좁아졌다. 무거운 프로펠러가 내 목 위에 올라탄 듯했다. 현기증과 복통도 급격히 심해졌다. 눈앞에서는 이 날의 적기인 전투기 한 대가 보였으며 내가 탄 전투기와 함께 대단히 험란한 전투기동을 벌이는 듯했다. '저 어차피 이거 다 못 보니까 천천히 하세요.'라는 말이 마음속을 맴돌았다. 간신히 눈을 떠보니 내 몸은 거꾸로 처박혀 있었는데 주위에는 하늘색이 펼쳐져 있었다. 하늘인지 바다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이제 훈련은 끝났습니다. 공간정위상실(SD, Spatial Disorientation) 체험 프로그램 5단계를 실시해보겠습니다. 눈을 감아보고 느낀 것을 솔직히 말해주세요." 눈을 감았다. 몸의 정면으로 급격한 압력이 전달됐다. 대기권 밖을 벗어나려는지 우리는 상공 위로 치솟고 있는 듯했다. "어떤가요?"라는 김 소령의 질문에 느낌을 솔직히 말했다. "눈을 떠 보세요." 우리는 바다로 떨어지는 중이었다. "이것은 급작스런 전투기의 이동에 따른 고도 변화를 우리 몸의 기관들이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베테랑 파일럿도 가끔은 착각을 일으킵니다. 자, 다시 눈을 감아보세요." 5차례에 걸쳐 내 오감은 마음껏 놀락당했다.

이륙으로부터 45분가량이 지난 후 "훈련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는 반가운 음성이 들렸다. 수평비행 상태로 기지로 돌아가는 중 적기 역할을 했던 KF-16 전투기가 다시 보였다. 섬광탄(Flare) 같은 것을 터뜨리기 시작

하자 공중에서 불꽃 섬광이 펼쳐졌다. 그 또한 장관이었다. "적의 열 추적 미사일을 교란하기 위한 것"이라는 친절한 설명이 헬멧을 통해 들렸다.

10여 분 후 활주로에 무사히 착륙했다. 등실 떠오른 것과 마찬가지로 착륙도 매끈했다. 엉덩이가 아플 정도로 덜컹거릴 줄 알았던 예상은 빗나갔다. "8.7G까지 갔었네요. 잘 참으셨습니다." 착륙 후, 김 소령이 말했다. F-5 같은 구형 전투기는 최대 7G까지 가능하다. "공군 장교 중에서도 8.7G까지 올라간 본 경우는 드물다."는 김 소령의 설명에 뿌듯해졌다.

훈련 후에도 일정은 계속됐다. 디브리핑을 위해서다. 훈련 전 사전브리핑을 통해 어떤 과정의 훈련을 벌일 것인지 소개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면 비행훈련을 마치면 다시 모여 '디브리핑'을 갖는다. 훈련이 제대로 실행됐는지를 다시 복기하는 자리다. 이런 과정 때문에 1회 출격을 위해서는 약 5시간의 시간이 소요된다.

우리는 ACMI체계 운용실로 들어갔다. 최첨단 장비를 통해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날의 훈련이 재상영되고 있었다. 모니터 속에서는 2대의 전투기가 쫓고 쫓기는 가운데 180도 돌고 갑자기 뚝 떨어지는 등 상상할 수 있는 온갖 '곡예'를 선보이고 있었다. 훈련 결과는 성공이었다. 김 소령은 가상의 기총사격을 통해 적기를 2번 격추했다.

오후 5시 브리핑 후 김 소령은 이날 야간비행이 있다며 서둘러 나갔다. 영화 15도의 차가운 겨울바람과 함께 전투기들의 요란한 이착륙 굉음이 귓전을 때렸다. "무척 시끄럽죠? 그런데 이곳 가족들은요, 저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어디

선가 사고가 났나 싶어서 잠을 못 잡니다.” 옆에 있던 공군 공보장교인 김성덕 소령이 말했다.

활주로에서는 전투기들이 성광을 뿜으며 이륙하고 있었다. 야간 비행 준비를 마친 김 소령이 보였다. ‘힘들지 않겠냐’고 묻자 김 소령은 “이 정도는 괜찮다.”고 웃으며 하나 둘 점등이 시작된 활주로 방향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문득 파일럿 출신 소설가 생텍쥐페리가 쓴 ‘야간비행’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 “이 사람은 오늘의 철야근무가 우리를 얼마나 결속시키는지 결코 알지 못할 테지.”

조종사와의 간담회

공군 최정에 파일럿들의 세계는 어떨까. 제29전술개발훈련비행전대에서 파일럿들의 일상에 대해 들어봤다.

매일 한두 차례 비행훈련을 하는 이들은 대개 첫 비행훈련이 시작되기 2시간 전인 오전 8시까지는 훈련장에 도착해 사전브리핑을 갖는다. 한 번의 비행 훈련에는 사전브리핑, 비행훈련 디브리핑 등의 과정이 포함돼 5시간이 소요된다. 대부분 주 5일에 7회가량 비행훈련을 가지며 한두 차례는 야간 비행이다. 야간 비행이 있는 날은 밤 11시가 넘어야 귀가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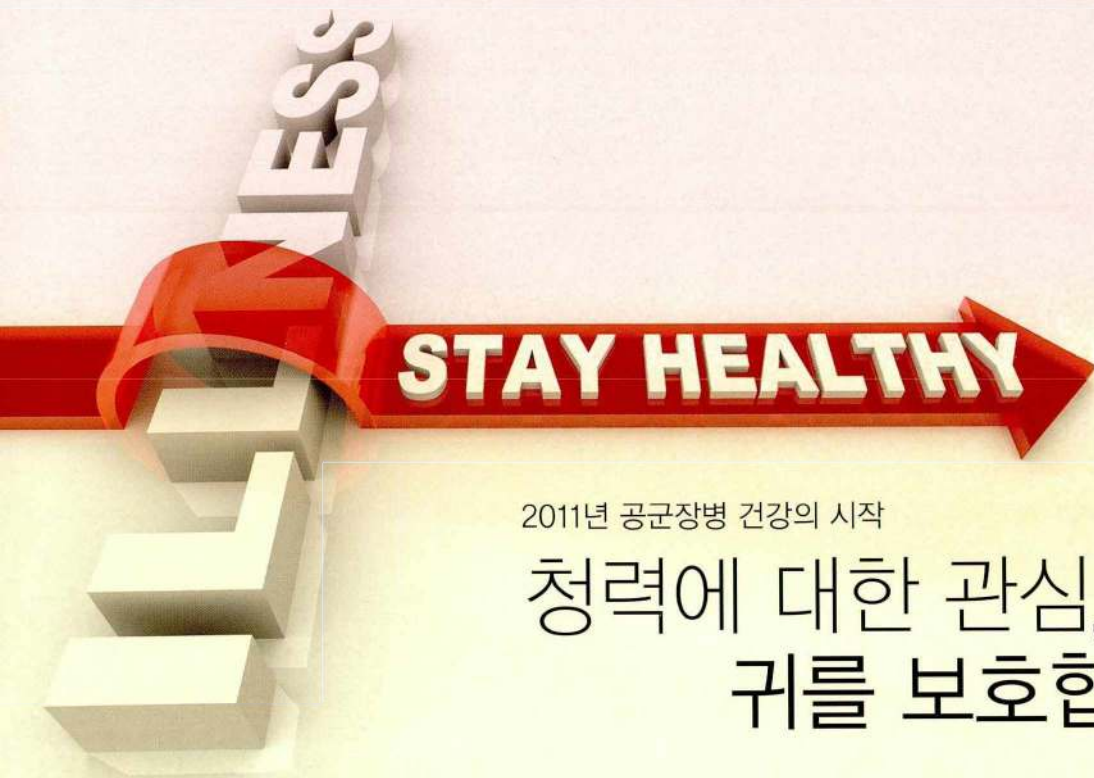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신경 쓰는 부분은 체력 유지, 특히 감기 예방이다.

조형진 소령은 “감기 상태에서 비행을 하면 중이염에 걸릴 수 있어 감기 예방에 특히 신경 쓴다.”고 말했다. 평소 훈련에도 불구하고 중력의 8~9배의 압력에서 하루 몇 시간을 버티는 것은 몸에 무리가 될 수밖에 없다. 김인선 소령은 “목,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고 있어서 여가 시간에는 유명한 썬뎀이나 침 놓는 집을 찾아 다닌다.”고 털어놓았다. 극단적인 압력차의 환경을 오가다보니 피부도 안 좋아진다고 한다.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보수와 열악한 근무환경, 잦은 이사로 인한 교육환경 문제 때문에 공군 파일럿 중 상당수가 민항사로 이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봉성 소령은 “그런 조건도 있지만 파일럿들이 이직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명예롭게 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군부대가 들어오는 지역에서는 ‘결사반대’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서고 작전에 성공하면 본인인데 실패라도 하면 사회적 비난을 감수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런 분위기에서 과연 군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이들의 최근 관심사는 차세대 전투기(FX) 사업에 관한 것이다. 사재철 소령은 “중국이 스텔스 기능을 갖춘 전투기 ‘젠-20’을 선보였고 일본도 2016년까지 전력화한다고 한다. 우리의 최신 기종 F-15K를 10대 띄워도 스텔스 전투기 1대를 막기 어렵다.”며 “동북아 영공 방위를 위해 스텔스 전투기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AF**





2011년 공군장병 건강의 시작

청력에 대한 관심, 귀를 보호합시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에 걸맞게 우렁찬 제트엔진의 소리, 드높은 우리 영공을 완벽하게 수호하겠다는 대한공군 기상의 소리입니다. 근데 힘이 너무 센탓일까요, 힘찬 소리는 주변 환경에 영향을 줍니다. 제트엔진과 가까운 곳에서의 음압은 120~140dB 수준으로 측정되고 있다고 하며, 먼 거리에서도 음압 수치는 높게 나타납니다. 비단 제트엔진뿐만 아니라 영내에서의 총성, 기계, 자동차, 방송 등 각종 높은 소리들은 공군장병들의 생활 주변에 산재해 있으며, 소리의 정도가 괴롭고 원치 않을 정도로 크다면 소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소음이 신체에 주는 영향은 객관적으로 증명된 것으로 스트레스 유발로 인한 호르몬 상승, 인간의 심성과 성격을 거칠게 하는 정신건강 악화, 혈압 상승을 포함한 심질환, 수면방해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이 중 청력에 미치는 영향은 누구나 쉽게 경험할 겁니다. 비행장으로부터 150m 떨어진 지역에서도 80~90dB의 높은 음압수치를 보인다는데, 우리 귀는 90dB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면 감각 세포에 악영향을 주어 소음성 난청이 발현될 가능성이 큼니다. 요즘 도시화 발달로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소음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데, 우리 공군 장병들은 소음 노출에 대해 더욱 각별히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이번 달은 소음성 난청의 진단 및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음성 난청의 진단을 위해서는 병력청취 및 귀 검사 외 청력검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난청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가족력, 약물, 두부외상 유무를 파악하고,

외이, 중이 및 청신경종양 등의 내이질환의 가능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기류나 폭발 등에 의한 난청은 한쪽 귀의 청력 저하를 보이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기타 다른 원인의 소음성 난청은 청력저하 소견이 양측이 비슷하게 나타나면서 대개 양측 귀의 차이가 15dB 이내입니다. 또 하나의 소음성 난청의 특징으로는 소음노출 후 10~15년이 지나면 최대 청력손실에 달하게 됩니다. 소음성 난청은 불행히도 근본적인 치료가 불가능하므로 조기에 발견,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난청 자가진단 TEST

1. 주변이 시끄러울 때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데 어려움이 있다.
2. 상대방의 말하는 소리가 증얼거리는 것처럼 들린다.
3. TV 소리가 크다고 주위에서 불평한 적이 있다.
4. 두 사람 이상이 동시에 얘기하면 혼란스럽다.
5. 여자나 어린아이의 말을 더 못 알아듣는다.
6. 전화로 상대방과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7. 상대방에게 자주 다시 한 번 말해 달라고 부탁한다.
8. 상대방의 말을 잘 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9. 이명이 들린다.



공군 항공우주의료원

Healthcare Center ASM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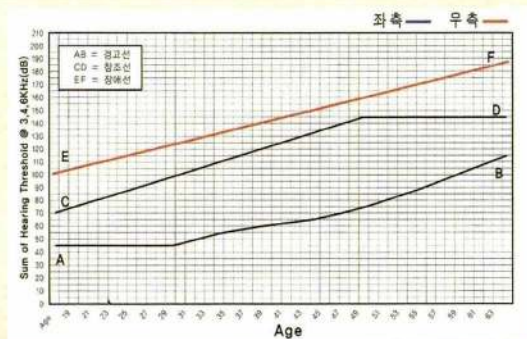
성명 :
군 번 :



청력저하 회복될 수 없는 비가역적 질환

조기 정확한 청각학적 진단이 중요합니다.
보호구 착용! 청력보호의 시작입니다.

공중군무자 건강관리센터
☎ 921) 5881~4



상기 중 3가지 이상의 증상에 해당되면 청력저하 위험성이 높기에 진료 및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소음성 난청의 진단 시에는 항상 노인성 난청에 의한 청력손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노인성 난청이란 나이가 들어가면서 서서히 청력이 떨어지는 자연스러운 노화현상이지만, 문제는 나이가 들고 방치할수록 증세가 계속 나빠진다는 데에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은 노출된 후 급격히 일어나고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는 감속과정을 밟는 반면, 노인성 난청은 처음에는 서서히 증가되다가 나이가 많아질수록 급격히 증가되는 가속과정을 밟습니다.

소음성 난청, 어떻게 치료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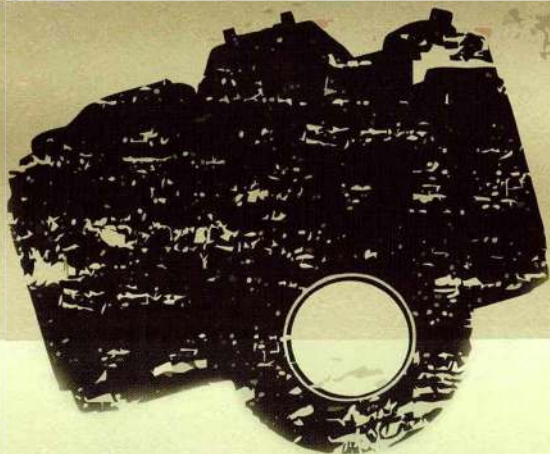
1단계 : 단기치료

소음성 난청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초기에 발견하여 상담 등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큰 소음에 단기간 노출되었을 경우(급성 음향외상) 응급조치로써 약물치료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스테로이드 요법, 아스피린, 비타민 E 병합이 가장 좋은 회복수술을 보이는 치료라고 합니다. 그 외에 고압산소요법이나 혈관확장제, 고음량의 비타민 요법 등이 효과가 있다는 일부 보고가 있으나 좀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2단계 : 예방

소음성 난청은 치유되지는 않으나 예방이 가능한 질환입니다. 청력손실은 주로 고주파수에서 시작하여 어음영역으로 침범하지만 고주파수의 손실이 심하여 모음보다는 자음의 판별이 어렵게 되는데, 이 때문에 시끄러운 곳에서 대화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 고주파수의 음을 선택적으로 올려주는 디지털 보청기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처럼 소음성 난청은 그 자체가 치료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미리 예측하여 예방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우선 주위의 소음을 측정하여 소음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기술적, 경제적 혹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개인 환경이나 단체 환경에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청각 관리 프로그램을 통한 예방이 중요합니다.

항의원 건강관리센터는 예방에 힘쓰고자 올해부터 신검 수검자를 대상으로 「청력감시카드」를 제작 활용하고 있습니다. 청력검사 결과를 그래프화하여 나이별 청력저하를 파악하고 미래에 대한 청력 저하 정도를 예측함으로써 청력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AF**



공군, 내 마음의 풍경 몇 장

“삼촌, 나, 어느 군에 갈까?” 조카들이 그새 군에 갈 나이가 되어 내게 물어오곤 한다. 내가 군에 있을 때 겨우 아장아장 걸으며 말을 때던 녀석들이 벌써 스물을 넘긴 것이다. 그러고 보니, 조카들은 하나같이 나보다 키도 크고 덩치도 만만치 않다. 얘기를 나누다보면 마음 씩씩이도 제법 근사하다. 나는 단연, 공군을 권유한다. 평소 살갑게 지내는 현역남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대답을 해준다. 사실, 나도 주위의 권유에 의해서 공군가족이 되지 않았던가. 감히 나는 조금증 내지 않는 법을 공군에서 배웠고 가족처럼 더불어 지내면서 사랑하는 법과 배려하는 법도 배웠다. 무엇보다, 꿈꾸고 도전하는 정신을 배우고 속으로 깊어지는 법을 배우면서 나만의 세계를 조용조용 열어가기 시작하기도 했다. 또한, 내가 무엇보다 공군을 권하는 것은 아마도 뭔가 하나는 전문적이고도 체계적으로 배워올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공군 병444기다. 1990년 12월 초에 입대해서 1993년 7월 말에 전역했다. 경기도 평택에서 근무했고 정훈관실 사진반 소속이었다. 공군에 입대할 때는 복무기간이 35개월이었으나, 복무기간단축 혜택을 받아 32개월 만에 전역했다. 그러고 보니 참 빠르다. 전역한 지도 일추 18년이 되어 가는 것 같다. 하지만 20년도 전에 부여받은 군번이 여전히 또렷하게 기억난다.

“군에 잘 다녀올게요.” 어머니 아버지께 큰절 올리고 집을 나섰을 때, 눈발이 날리고 있었다. 진눈깨비였다. 진눈깨비였다가 함박눈이었고, 함박눈이었다가 다시 진눈깨비였다. 전주에서 진주로 가는 버스는 느릿느릿 고개를 넘었다. 적지 않은 눈이 내린 탓에 버스는 늦은 밤에야 진주터미널에 도착했다. 근처에서 방을 잡아 하룻밤을 묵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훈련소로 향했다. 돌아보았을 때, 내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제야 생각난 듯 눈물이 났다.

입소를 하면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던 것은 다름 아닌 ‘가족 같은 공군’이라는 플래카드였다. 그때 나는 가족 같은 공군이라는 문구를 읽으면서 ‘가족’이 아닌 어디론가 끌려가는 ‘가족’처럼 걸음을 떼었던 것 같다.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훈련소에서 기본군사훈련을 마치고는 맨 마지막 과정 중의 하나로 행군을 했었다. 행군을 마치고 훈련소로 돌아오는 길목에는 다음 기수가 모두 나와서 ‘수고하셨습니다.’를 외치며 박수를 쳐주는 식이었다. 행군을 마치던 그 길목에서 나는 훈련을 무사히 마쳤다는 기쁨의 눈물을 참 많이도 흘렸던 것

같다. 하지만 그 기쁨의 눈물은 잠시였다. 우리 기수는 불행하게도 최종검열에서 ‘재검’을 받아야만 했다. 정말 암담했다. 거기에서 걸프 전쟁까지 터졌다. 우리와는 전혀 관계없을 것 같았던 걸프전 때문에 외박을 나갈 수도 없었다. 해서, 특기 교육을 받던 주말에 어머니와 누나가 면회를 와서 내 대신 글썽여주고 가기도 했다. 그때만 해도 정말이지 ‘군생활 참 꼬이겠구나’ 싶었다.

그러다가 평택으로 자대배치를 받아 본격적인 군 생활을 시작했다. 정훈공보실 소속이었다. 사진관련 업무 외에 일과시작 나팔이나 취침나팔 같은 것들을 방송으로 내보내는 것이 내 주요 업무였다. 해서, 나는 늘 삼십분 일찍 일어났다. 그러면서 같은 사무실의 선임병인 유석중 상병에게서 컴퓨터를 배웠다. 컴퓨터를 배우게 되면서 자잘한 행정업무도 보게 되었는데, 무엇보다 카메라와 암실과 내 책상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냥 좋았던 것 같다. 사실 지금은 내가 시인으로 살아가지만, 같은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유석중 상병을 모두가 시인이라 불렀었다. 참 섬세했던 그는 지금도 시를 쓰고 있을 것만 같다. 그때만 해도 나는 아무도 몰래 암실이나 방송실 구석에서 시 비슷한 것을 개작거려야만 했다.

사람들은 나를 ‘찍새’ 라거나 ‘찍사’ 라고 불렀다. 처음 몇 주 동안은 사진 촬영하는 법과 암실작업하는 것 등을 꼼꼼하게 다시 배웠다. 사진반장이시던 한 상호 상사님께였다. 동료 부사관이나 타 사무실 고참병들이 무척 잘 따르기도 했던 그분은 사진에 관한 한 전문가였다. 그분은 누구보다 따뜻한 분이었으며 화를 내거나 인상 쓰는 법이 없었다. 인격적으로도 격이 다른 분이였다.

사진을 배우는 일은 즐거웠다. 사실 나는 군에 가기 전 사진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암실작업은 더욱 그랬다. 하지만 사진 촬영하는 일과 암실작업에 맛을 붙이면서 일상이 즐거워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든 게 서툴렀다. 한 번은 매우 중요한 행사사진이었는데, ‘햇방’ 이 돌아서 사진이 한 장도 나오지 않은 적도 있었다. 걸핏하면 사진도 흐릿하게 흔들려서 뭘 찍어왔는지 알아 볼 수 없던 적도 여러 번이었다. 암실에서 현상작업을 하다가 필름을 새까맣게 태워먹기도 했다. 그때마다 죽었다 싶었지만 한 상사님은 나를 나무라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감을 심어주려 애쓰시곤 했다. ‘주눅 들지 말라’ 는 조언도 여러 번 해주셨다.

그럼에도 나는 참 부끄럽게도 기다렸다는 듯이 마음이 흔들리곤 했다. 사진뿐 아니라 행동도 서툴렀던 것이다. 피가 뜨거워서 쓸데없이 달아오르기도 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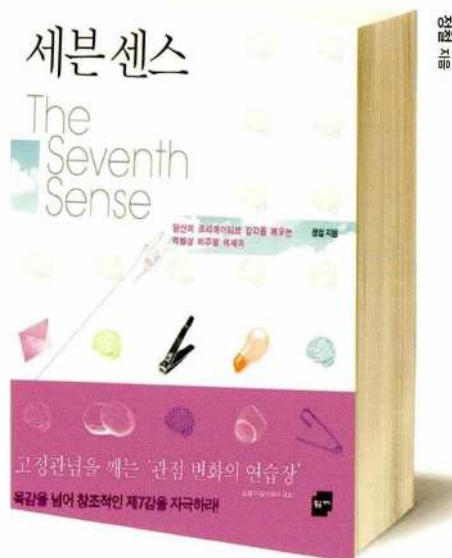


고 때로는 너무 식어서 마음이 차가워지기도 했다. 그때마다 나를 다잡아 준 사람은 정훈관실장이던 최 모 대위님이다. 참 멋진 공군인으로 기억되는 그분은 한마디로 신사였다. 탁월한 리더십을 갖춘 소속장이기도 했거니와 정말이지 나를 막둥이 동생처럼 대해주기도 했다. 그때 그분은 일부러 휴일에 시간을 쪼개어 부대 안에서 격의없이 시간을 함께 보내주기도 했는데, 시시콜콜 내 얘기에 귀를 기울여주며 다정다감하게 다독여주곤 했다.

한편, 내가 외박이라도 나갈 때면 어김없이 밥값을 쥐어주고는 했던 그 두 분께 배운 것은 책 읽는 습관이다. 그분들은 점심시간이나 잠 나는 시간이 있을 때면 책을 펼쳐 읽곤 했다. 해서, 나는 자연스레 책 읽는 습관을 배울 수 있었다. 이제와 돌이켜 보니, 그분들이 내 인생에 있어서 참 좋은 책이 아니었나 싶다.

참 오랜만에 공군시절을 떠올리다 보니, 기분 아릇해지는 밤이다. **AF**

PHOTOGRAPHY



안녕하세요? <책마을>의 새로운 이장(里長)입니다. 여러분께 월간 『공군』의 <책마을>이라는 코너로는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그러나 이번이 여러분과 저의 첫 만남은 아니지요. 혹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이곳에 시를 썼고,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수필을 써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 곳에 자리 잡지 못하고 종목을 바꾸며 글쓰기를 하고 있는 동안 늘 한결같이 <책마을>을 지키시던 마을 이장님이 계셨습니다.

이제는 모자람이 많은 제가 감히 그 자리를 이어받아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바뀌면 글의 분위기 또한 바뀌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지만 이미 전임 이장님께서 꾸며놓으신 마을 분위기에 흠뻑 취해있는 저와 여러분께 새로운 변화가 낯설게 느껴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이처럼 새로운, 변화, 낯설음이란 단어는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도 하지만 때론 두렵게 만들기도 하지요.

그래도 연젠가는 변할 수밖에 없고, 변해야만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많은 것들이 변하는 것을 보면 그야말로 우리는 '변한다'는 말을 제외하곤 모든 것이 변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보다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려면 적어도 기존의 것과는 다른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 누구나 알고 있는 것, 기존의 것과 다른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책, 『세븐 센스』가 바로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으로 정리되는 오감 이외에 또 하나의 감각인 육감.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감각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칠감, 즉 '세븐 센스'입니다.

이 책의 저자 정철은 오랜 기간 동안 광고 카피라이터로 활동하면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이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한마디로 창의적 사고, 역발상으로 표현될 수 있는 그의 이러한 노력은 때론 억지스러워 보이거나 한낱 말장난에 불과해보이기도 하지만 곰씹어 생각하다보면 그야말로 묵직한 둔기로 뒤통수를 얻어맞아 별이 반짝이는 느낌, 제 스스로 무릎을 '딱!' 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월간 『공군』에 시를 연재하게 된 계기는 대학시절 문예창작학을 전공하면서 시인으로 등단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수필을 연재하게 된 계기는 시로 표현하던 짧은 이야기를 좀 길게 늘어놓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읽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니 어느 순간 제 몸속에서 꺼내놓을 이야기가 바닥났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더 이상 창의적이지 않은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이제 <책마을>의 새로운 이장이 되면서 읽고, 생각하는 일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중심에 바로 칠감, 즉 '세븐 센스'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여정에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되 '세븐 센스'를 통해 서로 다른 생각을 해봅시다. 세상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그런 생각을. 그것이 비로소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리라 믿으며 여러분께 이 책을 권해드립니다. **AF**

2011 March

no.393

P
O
S
T
C
A
R
D

독자와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월간 「공군」에서는 여러분의 애정이 담긴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보내주신 편지들은 지면상의 공간을 이유로 편집될 수 있습니다.
비록 소개되지는 못했지만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실 곳은 독자 엽서나 월간 「공군」 59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 - □□□□

요 금
수취인후납부담

방송유효기간
2010.5.1~2011.4.30

제501군사우체국
제 1 호



월간 「공군」 퀴즈 이벤트 응모는 QR 코드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인식하세요.

받는 사람 321-929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501군사우체국 사서함 309호

월간 「공군」 편집실

2011 March

no.393

P O S T C A R D



월간 「공군」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 월간 「공군」은 □□이다.

◎ 월간 「공군」 3월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었던 글은?

◎ 월간 「공군」에서 다뤘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은?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퀴즈 정답

1. _____
2. _____
3. _____



퀴즈 정답자에게는
월간 「공군」 표지와
동북아 최고의 전투기
F-15K가 입혀진
카드 USB 4G를
보내드립니다.



월간 「공군」 3월호를 잘 읽고 문제를 풀어 독자퀴즈 엽서 뒷면에 답해주세요.

정답엽서 마감일 : 3월 31일까지

1. F-22 랩터가 최고의 전투기라 불리는 이유 중, 3S란 무엇인가?
2. 신고전주의를 이끌었던 선구자로서 프랑스 대혁명의 격동기에 활동했던 화가는 누구인가?
3. 영화 <랭고>의 핵심 키워드이자, 2011년 다보스 포럼의 핵심 의제 중 하나는 무엇인가?

1월호 독자퀴즈 정답 및 당첨자

정답 1. 10명 2. 리골레토 3. 흥선 및 골수

퀴즈 당첨자
충북 청원군 유한중 ● 충남 논산시 정세복 ● 전남 여수시 하연수
경기 수원시 최승훈 ● 충남 서산시 임재환 ● 경남 김해시 백순일

<월간 「공군」 독자들을 필자로 모십니다>

보내실 곳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사서함 501-309 정훈공보실 문화홍보과 월간 「공군」 담당
(우편번호 321-929)

이메일 Heyclickman@gmail.com(인터넷)

lpod4you@af.mil(인트라넷)

전화번호 02-506-6935 / 042-552-6935

스페이스 챌린지 2011

SPACE CHALLENGE 2011

본선대회

5월 28일(토) [예비 6.5(일)]

공군사관학교

접 수

공군홈페이지

[www.airforce.mil.kr]

주최 · 주관

대한민국 공군

후 원

공군발전협회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천문연구원

대한민국항공회

한국항공소년단

공군과 함께 꾸는 무한대를 향한 꿈



제33회 공군참모총장배
Space Challenge 2011

대한민국공군